

약가제도 ‘신약 혁신 보상’ 강화 R&D 투자 연동 약가체계 도입

정부, 약가제도 새판짜기 본격화
신약 중심 개편안 기대·우려 교차
제네릭 약가 40%로 인하 가능성
업계, 산업 성장동력 약화 우려도

오는 2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논의한다. 혁신 신약개발(R&D) 활성화와 신약 접근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 속에 제약 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 가치 평가와 신약 보상체계 간 균형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2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약가제도는 신약과 필수약 접근성 개선, 높은 약품비 부담 축소, 제약 업계 내 혁신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둔다. 정부는 제네릭 약가 산정률 하향 조정, 계단식 약가제, 사용량 비례 약가인하 연동제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도들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보상 체계의 일환으로 정부는 국산 신약 창출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국내 제약 업계에서도 신약개발(R&D)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약가인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 개량 신약 등의 가치가 적절히 평가되는 균형 잡힌 제도의 필요성도 촉구한다.

우선 정부는 ‘R&D 투자 비율에 연동된 약가보상체계’를 도입해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가 의약품에 대한 기존 위험분담계약(RSA)을 보완한 ‘약가유연계약제’가 도입될 예



사라진 전세 매물

26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앞에 전월세 안내문이 텅 비어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58.5를 기록하며 2021년 10월(162.2)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2021년 10월(16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 범위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전세 공급 부족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뉴시스

정이다. 이 제도는 이중약가제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표시 약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면서 표시 약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약가 산정률이 현행 53.55%에서 40% 수준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다. 다만 단순 약가인하 기조가 강화될 경우 중소 제약사 중심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등 제약 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제약 업계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대 사회에서 만성질환 치료는 장기 복원을 요구하고 이 중 상당수는 제네릭 의약품이 처방된다”며 “고

령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 현대인의 일상 속 만성질환 급증 등 복합적인 상황을 반영해 제네릭은 비용 절감 차원보다는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한 구성 요소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중소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연구개발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상을 실제 기업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약 중심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기업이 독자 개발한 국산 신약이라도 판매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롯데 부회장단 전원 용퇴 창사 이래 최대 인적 쇄신

2026년 정기 임원인사 단행
바이오 각자대표에 신유열

그들의 양대 축인 화학과 유통에서 동반 부진을 겪고 있는 롯데가 ‘부회장단 전원 용퇴’와 ‘CEO 30% 교체’라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롯데그룹은 26일 롯데지주를 포함한 36개 계열사 이사회를 열고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관련기사 1면>

이번 인사는 비상경영 상황 속 터닝라운드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개편과 인적 쇄신에 중점을 뒀다. 롯데지주를 실무형 조직으로 개편하고, 계열사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전체 CEO의 3분의 1인 20명을 교체하는 등 고강도 쇄신을 단행했다.

롯데지주는 고정욱 사장과 노준형 사장을 공동대표이사로 내정하며 실무형 조직으로 거듭난다. 고정욱 사장은 재무와 경영관리를, 노준형 사장은 전략과 기획을 맡는다.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에는 최영준 전무, 경영혁신실장에는 황민재 부사장이 각각 내정됐다.

또한 롯데는 지난 9년간 유지한 사업총괄 체제를 폐지하고 계열사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다만 롯데화학군은 HQ를 폐지하고 전략적 필요에 따라 PS



O(Portfolio Strategy Office)로 조직을 변경해 운영한다.

이번 인사에서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이영구 식품군 총괄대표 부회장, 김상현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등 부회장단 전원이 용퇴하며 세대교체를 알렸다.

박두환 롯데지주 HR혁신실장은 사장으로 승진했으며, 롯데GRS를 이끌었던 차우철 대표는 사장 승진과 함께 롯데마트/슈퍼 대표이사에 내정됐다.

주요 계열사 CEO도 대폭 교체됐다. 롯데백화점 신임 대표이사에는 정현석 부사장이 내정됐다. 정 부사장은 1975년생으로 롯데백화점 역대 최연소 대표이사다. 롯데윌푸드 대표이사에는 서정호 부사장이, 롯데건설 대표이사에는 오일근 부사장이 각각 내정됐다. 롯데e커머스 대표에는 추대식 전무가 선임됐다.

신유열 부사장(사진)은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와 함께 각자 대표를 맡아 바이오사업을 지휘하며 역할이 확대됐다. 또한 롯데지주에 신설되는 전략컨트롤 조직에서도 중책을 맡는다.

<4면에 계속>

/손종욱 기자 handbell@

급물살 타는 석유화학 구조조정 롯데·HD현대 대산 NCC 통합

롯데케미칼 물적분할 새법인
HD현대케미칼과 합병 추진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이 본격화하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나프타분해설비(NCC)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양사 석유화학 사업재편안을 결정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따른 사업재편 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했다. 정부가 8월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로드맵 이후 나온 첫 사업재편 사례다.

<관련기사 3면>

두 회사는 현재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연 110만톤)과 HD현대케미칼(연 85만톤)의 NCC를 각각 운영하고 통합 시 최대 110만톤의 설비 감축이 가능하다. 이는 정부와 업계가 약속한 NCC 감축 목표(270만~370만 t)의 약 30% 수준이

다. 업계에서는 HD현대케미칼의 비교적 최신 설비를 중심으로 가동하고, 노후 설비의 가동률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통합 방식은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 분할해 신설법인을 만들고, 이 신설법인이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구조다. 합병 후 존속 법인은 HD현대케미칼이며,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합병법인의 지분을 최종 50%씩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 양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도 완료했다.

NCC 사업은 최근 에틸렌 스프레드가 톤당 200달러 미만으로 떨어져 손익 분기점(250~300달러)에 미치지 못하면서 가동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통합 운영을 통해 규모의 경제 확보와 정유-석화 수직계열화 강화로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용기자 lsy2665@

200억弗 對美투자 전담 특별기금·공사 신설

한미전략투자특별법안 국회 제출
자동차 관세 11월 1일자 소급 적용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연간 2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과 공사 조직이 신설된다. 양국 관세 합의에 따른 후속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대미 자동차·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돼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담은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이를 운영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근거 등을 담았다.

우선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와 산업통

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의 중층적 구조로 이뤄진다.

절차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심의요청을 받은 운영위원회는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이재명 대통령, 동포 오찬 간담회서 재외국민들의 투표소 문제 해결 약속

▲나경원 “민주당, 1년 내내 계엄팔이·내란몰이… 그만 우려먹어야”

/사진 뉴시스

▲정청래 “‘윤 어게인’ 외치는 옹호세력에 누가 마음 열어주겠나”

▲국힘, 창원서李 정권 규탄 대회… 장동혁 “이재명 아웃, 괴물정권 끝내야”

▲조국, 당대표 취임 일성 ‘개헌·주거권 보장’檢개혁은 언급 안해

▲與, 연평도 포격전 15주기 맞아 “어떤 경우에도 北도발 용납 않을 것”

국민연금, ‘수익성-외환시장 안정’ 조화 위해 새 판 짠다

구윤철 부총리, 기자간담회

“국민연금 규모, 글로벌 세번째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최대역할
모든정책 고려, 외환시장 안정 총력”

정부가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 간 조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 (새로 설계된 틀) 구축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이 원화 값 하락 대응을 위한 미봉책이 아님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외환시장에 대한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는데, 구 부총리·기재부가 사전에 주제를 한정했다.

그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연기금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외환시장 등 최근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연금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 하는 시점에서는,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하락 영향으로 연금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정적 연금 지급이 가

능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한편, 이 뉴프레임워크 논의가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뉴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으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라고만 밝혔다. 이어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고 했다.

미국 재무부 또는 국민연금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됐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미 재무부도 (우리나라의) 환율시장 안정성을 원하는 것 같다. 국민연금으로도 외환시장 안정성이 수익성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의 환율 변동성 관련해서는 “구조적인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투기적 거래

와 일방향 쏠림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이른바 ‘전략적 환헤지(위험회피)’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1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기재부는 기금운용위의 일원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달러를 보유한 수출업체의 원화환전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출기업들도 한국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고 나름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환율 상승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를 대상으로 한 세제상 불이익 가능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 있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 1면 ‘2000억弗 對美투자…’서 계속

내년 ESS·탠덤셀에 1500억… ‘에너지고속도’ 구축 속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제3차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차세대 태양광 등 6개과제 중점 추진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에너지 분야’ 핵심과제에 대한 내년 예산 및 추진방안이 공개됐다.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에 1200억 원이 투입되고, 차세대 태양광으로 불리는 ‘탠덤셀’에 34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이른바 ‘에너지고속도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등 각 생활권에 보내기 위한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전담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에너지 분야의 과제별 내년도 예산 투자규모 및 상용화 일정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



북미에너지산업 전시회 'RE+ 2025'에서 일반에 공개된 삼성SDI의 차세대 배터리. /뉴시스

면 정부는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 ▲초고압직류송전(HVDC)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프로젝트를 소개했다면 각 과제별 예산·수치 목표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부안 기준으로 과제별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3차 계획에서 두드러지는 대목은 차세대 전력망 구축이다. 새롭게 반영된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데다 정부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처음으로 에너지저장장치·마이크로그리드(MG) 설치 물량, 실증 규모 등을 구체화했다.

내년에는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에 1176억 원 ▲산단·캠퍼스·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하는 MG 실증에 702억 원 ▲에너지공대 기반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에 195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서해안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셀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한 차세대 태양광 탠덤셀도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내년에는 총 336억 원 규모의 R&D가 반영됐고, 상용 모듈 개발·실증, 양면형·우주용 탠덤셀 개발 등 신규 과제만 17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2028년 세계 최초 상용 모듈 출시하고, 2030년까지 셀 효율 35%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 분야에는 초대형 20MW+급 터빈과 부유식 시스템 국산화가 핵심이다.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는 그린수소 프로젝트에는 총 318억원의 수전해 R&D가 편성됐다. 제주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그린수소 10.9MW 실증은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력 수요 구조 변화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 재편 속에서 전력망과 태양광 등은 내년 실행의 핵심축”이라며 “이번 계획은 각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굴리는 첫 해의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전략투자기금 재원 외환수익 등으로 조달

이후 산업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투자사업의 추진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협의에 나선다.

한미 협의위원회에서는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한미 협의위원회 등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별법안은 특히 이 같은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양국 MOU에 명시된 7가지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송금한도 200억달러 준수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집행 조정 ▲상업적 합리성 없는 투자 방지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미국 측에 제시 ▲벤더·P·M 선정 시 한국 기업·인력 우선 추천 ▲미국 정부의 사업 지원(규제 절차 가속화, 에너지·용수·전력 공급 등) 협의 ▲20년 내 투자금 회수 어려울 경우 현금흐름 배분비용 재협의 등이다.

특별법안은 또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금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대미투자(연 200억달러 한도)와 조선헌력투자 금융지원(보증, 대출 등)에 사용되며,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미투자 계정과 조선헌력투자 계정을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누리호, 우주 자기장·오로라 관측 임무

2년6개월 만의 비상

‘중량 2배’ 기술·산업 중대 분수령
위성 13기 총돌없이 궤도에 뿌려야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2년 6개월 만의 비상을 위해 발사대 기립을 마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번 4차 발사는 체계종합기업이 처음으로 전 과정을 주관하고, 지난 3차 발사 대비 2배 늘어난 중량을 싣고 떠나는 만큼 기술적·산업적 측면에서 중대 분수령

이 될 전망이다.

26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의 최대 관건은 ‘무거워진 몸집’을 감당할 정밀성이다. 누리호 4차 발사체의 탑재 중량은 약 960kg으로, 지난 3차 발사 때보다 2배가량 늘었다. 목표 고도 역시 기존 550km에서 600km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3단 엔진이 3차 때보다 약 24초 더 연소해야 목표 궤도에 안착할 수 있어, 추진·연료 계통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성 사출 난도도 높아졌다. 이번에는 주 탑재체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516kg)를 포함해 총 13기의 위성이 실린다. 이를 위해 신규 적용된 ‘다중 위성 어댑터(MPA)’가 13기의 위성을 순차적으로, 총돌 없이 궤도에 뿌려줄 수 있는지가 성공의 열쇠다.

이번 발사가 ‘심야’에 이뤄지는 이유는 주 탑재 위성의 임무 특성 때문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우주 자기장과 오로라 관측 임무를 수행한다. 관측에 최적화된 태양광 조건을 맞추기 위해

위성은 ‘송교점 지방시(LTAN)’가 낮 12시 40분인 태양동기궤도(SSO)에 진입해야 한다. 이 궤도 진입을 위한 골든 타임이 바로 오전 0시 54분에서 1시 14분 사이다. 날씨 외에도 국제우주정거장(ISS)과의 충돌 회피를 위해 27일 오전 1시 10~12분 구간은 피해야 한다.

한편 이번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서 제작 총괄을 맡은 첫 번째 사례다. 누리호가 성공하면 이륙 13분 27초 후 주 위성을 분리하고, 이후 20초 간격으로 큐브위성을 사출하며 비행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서현 기자 seoh@

네이버, 두나무 품었다

AI·검색·결제·블록체인 아우른, 디지털 금융사업 도전

포괄 주식교환 승인, 절차 마무리
교환비율 1대2.54... 지배력 46% 확보
결제 80조 역량·업비트 기술력 결합
AI·블록체인 융합해 금융 혁신 추진
스테이블코인·AI 기반 신사업 확대

네이버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승인하며 두나무를 계열로 편입, 웹3·디지털 금융 기반을 본격 강화한다.

네이버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계열로 편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같은 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이사회도 해당 안건을 각각 승인하면서 거래 구조가 최종 확정됐다.

네이버는 두나무 편입을 통해 웹3 환경에서 금융·결제·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글로벌 도전의 기반을 확보하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네이버가 두나무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국내 3400만 명이

상의 사용자를 기반으로 연간 80조원 규모 결제 트래픽을 확보한 최대 간편결제 플랫폼이다. 두나무는 국내 1위이자 글로벌 탑티어 디지털자산 거래량을 기록하는 업비트 운영사로, 자체 블록체인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네이버는 “AI·검색·결제 인프라·블록체인을 결합하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식 교환은 외부 전문가의 기업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산정됐다. 기업가치 기준 두 회사의 비율은 네이버파이낸셜 4조9000억원, 두나무 15조1000억원으로 1대3.06이다. 다만 양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다르기 때문에 주당 교환가액은 두나무 43만9252원, 네이버파이낸셜 17만2780원으로 환산돼 주당 교환비율은 1대2.54로 최종 정해졌다. 즉 두나무 1주

당 네이버파이낸셜 2.54주가 교환된다.

네이버는 “공시내 주식 교환비율은 기업가치 비율을 개별 주식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여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교환 이후에도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한다. 네이버가 보유한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17%에 더해, 두나무 송치형 회장과 김형년 부회장이 보유하게 될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중 각각 19.5%, 10.0%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총 46.5%의 의결권을 확보하게 된다. 포괄적 주식 교환이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일반사업지주사로 전환돼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

두나무 계열 편입 이후 양사는 AI,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기술을 융합해 웹3 기반의 디지털 금융 혁신을 추진한다. 네이버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기술 저변 확대와 인재 양성, 사회적 수용도 제고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K 핀테크의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두나무 편입은 네이버파이낸셜의 금융 서비스 경쟁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전환점”이라며 “웹3 시대 글로벌 도전을 선도할 기술 융합 기반을 만들고 양사의 협력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업 결합의 배경으로 네이버가 AI 분야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후발주자인 데다 광고와 커머스 사업의 한정적인 확장성에 마주치면서 두나무와의 기업 결합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해진 창업자의 이사회 의장 복귀 이후 글로벌 진출과 AI 사업에 광폭 홍보를 이어온 만큼 이번 기업 결합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넘어 AI 사업과도 연계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중동 전력 재편 가속... K-방산, 현지 수요 ‘정합성’ 부각

사막·고온 환경서 운용 신뢰성 주목
지상·항공·항공 전력수요 빠르게 확대
K9·천무·천궁-II 등 경쟁력 확인
K2·FA-50·KF-21 현지조건 일치
유럽 검증 거쳐 ‘2차 성장축’ 기대

중동 지역의 전력 현대화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주요 방산기업의 핵심 무기체계가 현지 수요와 높은 정합성을 보이고 있다. 사막·고온 환경에서의 운용 신뢰성과 장거리 정밀타격, 중거리 요격, 차세대 전투기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며 한국산 장비들이 전방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동 방산시장 재편 속에서 K-방산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사우디·UAE·이스라엘 등 주요 국가들이 추진 중인 지상·항공·항공 전력 강화 프로젝트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KAI)가 보유한 핵심 무기체계가 구체적



지난 10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ADEX2025에서 방산 4대 강국 도약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승용 기자

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은 ▲고온·모래·먼지 환경에서도 안정적 작동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드론·탄도탄 대응을 위한 중거리 요격 ▲기

동력 높은 지상 전력 ▲전투기 현대화 ▲신속한 납기다. 한국산 무기체계는 이 조건 대부분을 충족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상전력 분야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ML

RS) ‘천무’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K9은 장사정·고속 연사·자동장전 기능을 갖춰 사막 기동전에 적합하고 다수 국가에서 운영되며 내구성이 검증됐다. 천무는 전략시설을 장거리 위협으로부터 방어해야 하는 중동 특성에 맞춰 수요가 커지고 있다.

항공·요격 체계는 중동에서 가장 빠르게 커지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사우디 정유시설 공격,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드론 공격 등 실제 위협이 지속되면서 중거리 요격(MRSAM) 확보가 필수 요건이 됐다. 한국 기업에서는 LIG넥스원의 천궁-II가 패트리엇 대비 가격경쟁력과 짧은 납기, 운용 효율성을 바탕으로 중동 국가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가장 근접한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지상 플랫폼에서는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중동 전차 현대화 구간과 맞물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K2는 고온 역

제, 사막형 냉각, 자동장전 시스템을 적용해 사막 환경에서도 기동성과 지속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유럽산 전차 대비 도입비용과 납기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중동의 빠른 전력 증강 요구와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항공전력 부문에서는 KAI의 FA-50이 훈련기·경공격기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 KF-21은 중동 공군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전투기 현대화 수요와 직결되는 무기체계다. KF-21은 스텔스 요소를 반영한 4.5세대 플랫폼으로, F-35 도입이 지연되는 사우디·UAE, 중형급 다목적 전투기 수요가 남아 있는 이스라엘 등에서 잠재 수요가 예상된다. 고온·먼지 환경을 고려한 설계, 장시간 초계 능력, AESA 레이더 기반 요격·정밀타격 능력 등이 현지 작전 조건과 정합성이 큰 요소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중동이 K-방산의 ‘2차 성장축’이 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中企 성장성 한계... 덩치 키워야 기업 생산성 3.5배 ↑

대한상의, 기업규모별 생산성 분석
성장기피 ‘피터팬 규제’ 개선 요구돼
중견 전환 유예에 DX·AX 조건 포함
제조 AI·레트로핏 확산 필요 강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노동생산성이 최대 3.5배로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성장 기피)’을 유발하는 규제를 손질하고 디지털·AI 전환을 지원해야 국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발표한 ‘기업 규모별 생산성 추이와 시사점 연구’에서 국내 기업의 1인당 평균 노동생산성(연간 부가가치)이 기업 규모와 비례해 급격히 상승한다고 밝혔다. 종사자 299명

이하 중소기업의 1인당 생산성은 1억 3800만원, 300~999명 규모 중견기업은 2억7680만원(중소기업의 약 2배)으로 집계됐다. 1000명 이상 대기업은 1인당 4억8590만원으로, 중소기업 대비 3.5배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격차의 원인으로 ‘규모의 경제’를 지목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자본장비율이 높아지고 ▲R&D 투자 여력이 늘며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강화돼 생산성 효율이 구조적으로 개선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규제 증가와 지원 축소를 우려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피터팬 기업’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대한상의는 단순한 규제 완화 차원을 넘어 성장

을 유도하는 ‘당근과 채찍’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될 때 일정 기간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는 ‘중견기업 전환 유예제도’에 DX(디지털 전환)·AX(AI 전환) 추진 여부를 유예 조건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단순한 덩치 키우기가 아닌, 생산성 혁신을 동반한 ‘양질의 성장’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실제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이후 혜택을 받는 기업은 지난 2020년 949개에서 2024년 1377개로 늘어났지만, 혁신 없이 혜택만 누리는 ‘진류 전략’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AI 전환과 스마트 제조 체계 구축도 과제로 꼽혔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률

은 19.5% 수준으로 개선 여지가 크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이 고가의 장비를 새로 들여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레트로핏(retrofit)’ 방식의 제조 AX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기존 노후 장비에 머신비전·센서를 부착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AI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AI 전환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해킹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체계 강화도 강조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AI 시대의 핵심은 규모에 따른 비용 절감이 실현되는 ‘규모의 경제’, 그리고 선점하는 자가 모든 가치를 가져가는 ‘속도의 경제’에 있다”며 “중소기업의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 정책도 제조 AI·로봇 도입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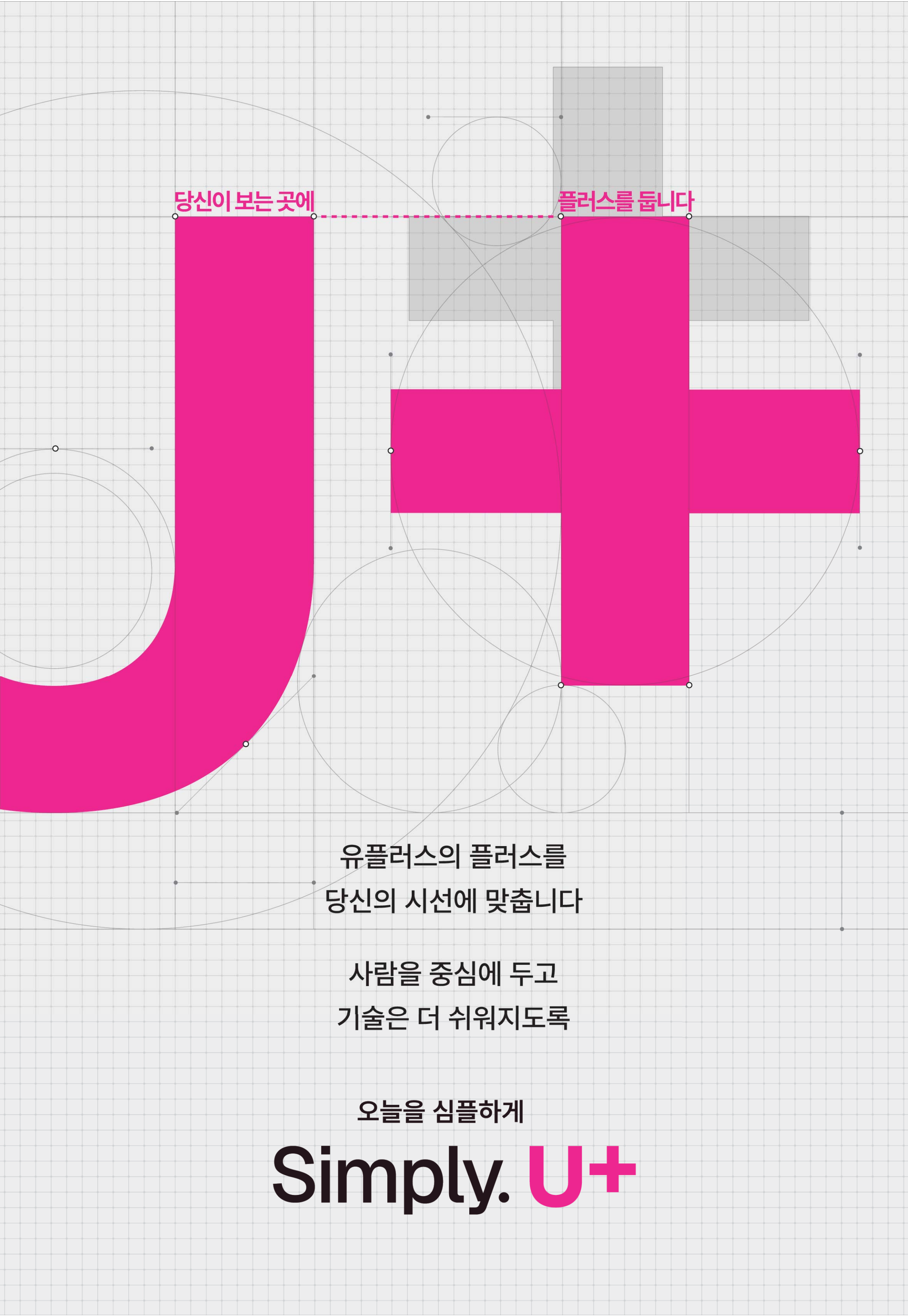
직무 전문성 중심 중용

》1면 ‘롯데 부회장단...’서 계속

롯데는 직무 전문성을 중심으로 핵심 인재를 중용했다. 김송기 롯데호텔 조리 R&D실장은 만 65세의 나이에 상무로 승진했으며, 황형서 롯데e커머스 마케팅부장, 오현식 롯데이노베이트 AI Tech Lab실장, 김송호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PE팀장, 백지연 롯데물산 투자전략팀장 등은 발탁 승진했다.

여성 임원 4명이 승진하고 8명의 신입 여성 임원이 탄생하는 등 여성 인재 등용 원칙도 유지됐다. 조형주 롯데백화점 럭셔리부문장, 심미향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사업혁신부문장, 손유경 롯데물산 개발부문장, 오경미 롯데멤버스 D T부문장이 상무로 승진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유플러스의 플러스를
당신의 시선에 맞춥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기술은 더 쉬워지도록

오늘을 심플하게
Simply. U+

“명실상부 국익 특별법” vs “비준동의 필요·국민경제 부담”

〈민주당〉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與 “완벽한 법안으로 통과 기대
시한 없이 꼼꼼하게 심의 진행”

野, 막대한 정부 재정 투입 예상
국회 비준동의의 필요 입장 고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관세협상의 후속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별법안을 두고 여야가 국익에 저해되는 일이 없이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백승아·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7층 의안관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미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11월1일자로 소급적용되는 요건을 갖췄다.

허 원내수석은 의안과 법안 제출 후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대변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기자들과 만나 “상업적 합리성, 투자 한도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한국에 여러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경우 방어 장치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법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 특별법에 대해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고 또 혹시라도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좀 더 완벽한 대미투자 법안으로서 심의되고

통과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담당 상임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의원이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던 지적에 대해서 “기재위원장(임이자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서 이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 의사나 ‘안하겠다’ 이런 의사를 한 번

도 표명한 적 없다”며 “전향적인 협조와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이어질 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검토하느냐 물음엔 “패스트트랙까지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며 “한미 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요청드린다”고 답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은 명실상부한 국익 특별법이다. 속도도 중요하다”면서 “그렇지만 신중함과 철저함을 원칙으로 삼겠다. 현장 요구를 직접 듣고 국가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에서 만든 기회를 투자와 일자리로 반드시 연결하겠다”라며 “대한민국이 전략산업 중심국가로 도약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한미관세협상 후속조치로 한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입법부인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헌법 제60조1항에 따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 사항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필요 여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 MOU(양해각서)를 비롯해서 어떤 것이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점이 있으면 국내법, 특별법, 법 개정 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특별법 처리만 말해서 문제라고 당이 주장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영 원내수석은 전날(25일) “한미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다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李 대통령, 정상회담 후속조치·청와대 이전 주력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무리

4개국서 주요 분야 협력강화
원·달러 환율 등 국내현안 산적
내달부터 청와대 이전 시작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7박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서울 공항으로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있었던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다음달로 예정된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해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인사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번 순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집트·남아프리카



G20 정상회의의 등 중동·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 경기 성남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카공화국·튀르키예 4개국을 순방하며 각국과 원전·방산·인공지능(AI)·바이오·인프라 등 주요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028년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의장직을 맡아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숨가쁜 다자외교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양자회담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UAE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AI·방산·원전·에너지·K-컬처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세밀화하는 데 주력했고, 특히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를 이끌어냈다. 해당 사업의 규모는 200억달러(30조 원) 규모로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UAE와 방위산업 공동개발 및 현지생산의 구체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정부 측의 실무 협상 작업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간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규제·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을 협력범위로 하며, 이를 위해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정보·경험·노하우·지식 지식공유와 전문인력의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늉 제2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부지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 마련하는 의의가 있다고 밝혀 추후 한국 측의 참여가 기대된다.

또한 양국은 튀르키예 도로청·한국도

로공사·한국해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3자간 튀르키예·한국·제3국에서 민관 협력개발사업(PPP)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 추진,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튀르키예 도로청에서 발주할 대규모 도로 PPP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현안도 만만치 않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눈 앞에 돌 만큼 급등해 국내 경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당국은 환율 급등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 공단과 ‘4자 협의체’를 구성하며 국민의 노후 자금이 환율 안정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사업이었던 ‘청와대 대통령실 용산 이전’도 이 대통령이 귀국함에 따라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3일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3년 →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임금체불 예방활동 강화도

당정이 26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당국 합동감독 및 점검, 강제수사 강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당정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제감도 높은 5개 정책 ▲임금체불 근절 ▲

임금구분지급제 민간 도입 ▲취업사기 근절 ▲청년일자리 해소 ▲근로감독관 인력·역량 강화를 연내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년연장 입법,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교원·공무원 정치기부금 보장’ 등 연내 입법 처리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당정은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외에도 범죄의 원천 차단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를 공공발주 건설공사 외 민간발주 공사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확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당 제도는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적용 확대 시 적용 분야·업종 등은 추후 고려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회 모두발언에서 “노동자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명확하다.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민생과 직결된 정책과 제도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먼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 협업 및 지방정부와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을 1차 관리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野, 불법계엄 두고 “사과하면 믿어주겠다”

비상계엄 1주년… 사과 표명 두고
‘내부분열 vs 반성 필요’ 의견 갈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당 지도부의 사과 표명 여부와 수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강경파 당 지도부는 반복된 사과는 내부 분열을 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당내 일부 초선 의원은 지도부의 강도 높은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며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1주년인 다음달 3일이 장동혁 당 대표 취임 100일과 겹치기 때문에 기자회견 등 언론과 소통 자리에서 당 지도부의 사과 메시지를 낼 지

고심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의 민심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지방선거에서 당 내부 위기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이 반복된 사과보다 과거를 모두 끌어안고 지지자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이 무슨 날짜가 됐다고 사과를 하고,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을 전부 출당하고 탈당시키면서 우리와 관계없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믿어주겠다”라며 “우리당의 역사이자 공과 과인데, 오히려 우리가 책임을 지고 나가는 책임 정치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두근두근

❤ 두근두근 프로젝트 #3

인생의 2막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새로이 펼쳐질 인생,
든든한 미래의 설계까지
시니어금융을 맞이하는 당신을 위해

BNK금융그룹이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 피 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벤처투자 BNK 신용정보 BNK 시 스 템 BNK 씬농구단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금융그룹**



26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서 참석자들이 AI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체험해보고 있다.



/뉴시스

포스기·마이데이터·챗봇까지 일상에 스며든 미래 금융 한눈에

프로포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128곳 참여… 99개 부스 운영
글로벌 핀테크 기업 기술 각축전

AI 결합 핀테크 서비스 이목 집중
국내외 기업 부스마다 체험 ‘후끈’

26일 서울 양재 AT센터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 참석하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국내 금융·IT 업계 관계자는 물론, 해외 투자자와 일반 관람객의 발길도 이어졌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사전등록 인원은 500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2배 규모다. 오는 28일까지 개최되는 올해 행사에는 128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99개 부스를 운영한다.

올해 행사는 ‘핀테크x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4대 금융(신한·KB국민·하나·우리)은 전통적 금융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공개했고, 토스·N Pay·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도 금융 앱을 일상생활까지 확장하는 다양한 신기능을 선보였다.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 부상하는 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 등 해외 기업도 다수 참여했으며, 글로벌 DBMS(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업 오라클도 올해 처음으로 부스를 냈다.

본격적인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국내 금융지

주 회장들은 행사에 앞서 자사 부스를 방문해 신기술을 체험한 뒤 임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들은 메인 스테이지에서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본 행사의 시작을 선언했다.

이날 이억원 위원장은 개막식 환영사에서 “앞으로는 AI 활용능력이 경쟁력의 절대적인 척도가 될 것이고, 정부도 ‘AI 3강 국가’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라면서 “금융이 AI 대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초대형 투자를 추진하고, 금융 관련 AI 인프라를 정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가장 많은 관람객이 몰린 부스는 카카오페이·Npay·토스 등 간편 결제사가 운영하는 부스였다.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와 결제 이력 등을 활용해 더 건강한 생활과 소비 패턴을 제시하는 ‘Pay I’를 선보였고, Npay는 이달 정식으로 출시한 오프라인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시연했다. 토스는 앱 사용자의 비식별 정보를 활용해 자영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토스 애널리틱스’를 선공개했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 애널리틱스는 토스 앱 사용자의 동의하에 제공되는 비식별 정보를 활용해 자영업자의 영업 전략 설정을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상권분석 시스템까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면서 “시스템 구축 및 앱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뱅크는 자사 인터넷뱅킹 앱 내에 제공될 예정인 챗봇 기반 서비스 ‘AI 에이전트 뱅킹’을 선보였다. 사용자가 전송한 메시지를 기반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안내받는 것은 물론,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금융자산 관리도 가능하게 했다.

i뱅크 관계자는 “디지털금융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만,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은 아직 많지 않다”라면서 “대화만으로도 각종 금융 거래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금융취약계층도 각종 금융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DBMS 기업 오라클도 올해 처음으로 부스를 냈다. 국내 금융산업이 탈규제 움직임을 따라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광범위하게 구축한 글로벌 인프라와 업계 표준, AI 활용 능력 등을 앞세워 국내 판로를 확장하려는 목표다. 오라클은 이미 하나카드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공급 중이다.

올해 전시회는 금융업계와 IT업계가 상호 발전을 위해 교류하는 자리를 넘어, 일반 관람객들도 차세대 핀테크 기술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저축은행 금리 3%대 진입 예대율 부담에 수신 강화

정기예금 평균 2.72%로 올라
6개월·1년 모두 3%대 초과도

저축은행 업권의 예금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수신 경쟁에 소극적이었던 저축은행들이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2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년 만기 저축은행업권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이날 기준 2.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저축은행업권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이달 초중순 2.69%에서 2.68%, 2.67%로 조금씩 하향하는 추세를 보였다. 월말에 접어들면서 2.71%를 지나 2.72% 수준까지 다시 상승했다.

지난 20일을 기준 금리(단리 기준)가 3%를 넘어선 곳도 나오고 있다.

OK저축은행의 ‘e-안심애플러스 정기예금6’ 상품 금리는 2.90%에서 3.10%까지 올랐다. JT천애저축은행의 ‘비대면 회전식 정기예금’도 2.85%에서 3.05%로,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은 2.70%에서 3.05%로 확대됐다. HB저축은행 ‘e회전 정기예금’, ‘스마트 회전 정기예금’ 상품 모두 2.70%에서 3.05%로 상승했다.

6개월 만기 상품이 3%를 초과한 곳도 있다. OK저축은행의 ‘e-안심애플러스 정기예금6’은 3.10% HB저축은행의 ‘e-정기예금’, ‘스마트 정기예금’은 예금이 6개월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1년 만기 상품과 비슷하게 모두 3%대를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다시금 오르는 배경에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연말 예금 만기 시즌의 도래다. 연말에는 만기 도래 예·적금이 많아 자금이 대거 풀리는 만큼,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예금 금리를 조정해 고객 재유치 전략을 펼쳐왔다. 올해 역시 이런 연말 특성이 금리 인상 흐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예대율 관리 움직임도 예금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예대율은 은행이 보유한 예금 대비 대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다. 대출 비중이 높은 일부 저축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려 자금을 확충하고, 모수를 늘리면서 예대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 금리의 불확실한 환경이 저축은행업권 예금금리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 금리가 현재 동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또 오를지 모르는 시장 금리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저축은행업권들이 미리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시장 금리가 동결 혹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 하에 저축은행권들이 미리 금리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하나의 원인으로 예금 금리가 올랐다고 보다는 연말 시기, 예대율 관리 차원, 시장 금리 환경 변화 등의 변수가 골고루 작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고객 체감하는 데이터 혁신 만들자”

KB금융 데이터 혁신 세미나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비즈니스·문제 해결 측면 활용”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25년 하반기 그룹 데이터 혁신 세미나’에서 “비즈니스와 문제 해결 측면에서 데이터를 바라보고, 도전적인 자세로 고객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KB금융은 데이터와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 고객 중심의 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계열사간 데이터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KB금융은 데이터를 실제 비즈니스 현장과 고객 서비스에 접목해 고객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상·하반기 그룹 데이터 혁신 세미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지주와 계열사의 데이터·AI 분야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계열사 전 직원에게 동시 전달됐다. KB금융은 ▲고객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방안 ▲임·직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 ▲데이터 분석·사업 활용 방안 연구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각 계열사 실무 직원들은 ‘데이터 기반 고객 금융안전망 구축’, ‘소비패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에서 진행된 ‘25년 하반기 그룹 데이터 혁신 세미나’에서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사진)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카드 추천’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도출한 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실행 로드맵을 발표하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일선 현장의 성공적인 데이터 활용 경험을 그룹 차원으로 확산시키고자 데이터와 마케팅 영역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창출한 주요 성과·향후 계획과 함께 신규 도입한 AI 에이전트의 활용 사례·시점 등을 공유했다.

KB금융 관계자는 “데이터와 비즈니스의 언어를 동시에 이해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 환경을 갖춰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고의 회계부정 1년 초과시 과징금 매년 30%씩 가중”

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위반 기간 비례해 패널티 부과

앞으로 기업은 회계부정 기간만큼 가중처벌을 받는다.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1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된다. 위반금액이 가장 컸던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시행령’과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위반기간에 비례해 패

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고의적인 회계처리 기준 위반행위가 1년을 초과하여 지속될 경우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시킨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과실 위반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난다.

회계정보 조작, 서류위조, 감사 방해 등 3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의 분식 회계 수준으로 처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를 기망하는 장부조작, 감사 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분식 회계 조치시 조치 가중사유”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규정상 허용된 최고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일부기업에서 이뤄지던 대주주

나 미등기 임원 등이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 이익을 얻는 행위도 막는다.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유도한다.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 적발·시정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교체 ▲위반행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 ▲당국의 심사 감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감면한다.

시행령·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베트남서 OLED 후공정 본격 확대 삼성D·LGD, 생산기지 고도화 가속

삼성D 베트남에 고기술 중심 투자
현지 엔지니어·전문인력 육성 추진
노트북용 OLED 모듈라인 대규모 구축

LGD 누적 7.9조 베트남 투자 지속
하이퐁 거점 활용 물류 효율성 강화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후공정을 담당하는 베트남법인을 중심으로 생산기지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사가 OLED 중심의 사업 구조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고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디스플레이 생산 허브로 육성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팜 호앙 손 박닌성 인민위원장과 면담하고 베트남 내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닌성 당국은 삼성디스플레이에 신규 고기술 제품 투자와 현지 기업의 공급망 참여 확대, 전문 인력 양성 협력 등에서 지속 동반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베트남 법인을 단순 생산 거점 유지를 넘어 고부가가치 기술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삼성디스플레이는 베트남 법인을 단순 조립 인력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전문가·엔지니어 등 고숙련 현지 인력을 직접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또 삼성디스플레이는 2026년까지 4조 1000억원을 투자해 충남 아산에 8.6세대 IT OLED 라인을 구축함에 따라



LG디스플레이 베트남 하이퐁 공장 전경.

/LG디스플레이

후공정을 담당하는 베트남에도 연 1000만개의 노트북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모듈 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LG디스플레이도 베트남을 주요 생산 기지로 키우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2018년 15억달러, 2020년 7억5000만달러 투자를 집행한 데 이어 2024년 10억달러 투자를 결정해 누적 투자액이 56억5000만달러(약 7조 9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확정된 투자분은 2029년까지 단행된다.

이러한 투자 확대 배경에는 LG디스플레이가 아이폰, 아이패드 등 중소형 OLED 부문에서 입지를 넓히며 생산능력 확충이 불가피해진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하이퐁이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해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LG디스플레이는 중국 창흥, 스카이웍스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어 중국으로의 운송이 용이한 점은 이점으로 평가된다.

지난해에는 중국 광저우의 액정유리 장치(LCD) 공장을 매각하면서 일부 자금을 베트남 투자에 재배치하며 사업 구조 재편에도 속도를 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광저우 LCD 공장을 매각한 금액 2조 2446억원 중 5600억원을 베트남 공장에 투자해 모듈 공정 고도화 작업에 나선 바 있다.

특히 LG디스플레이 베트남 하이퐁 법인은 지난해 250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5%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후공정 라인을 베트남에 두는 것은 세트사 공장 인근에서 물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이라며 “후공정은 패널을 모듈 형태로 조립하는 뒷단 공정으로 핵심 기술이 집약된 전공정 대비 기술 유출 위험이 낮다는 점도 해외 생산 거점 확대를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GS그룹, 허용수·허세홍 부회장 전면 배치

에너지·정유·석화 사업 재편 가속
70년대생 대표이사 대거 기용 확대

GS그룹이 허용수 사장과 허세홍 사장을 각각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며 경영 체계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했다. 오너 일가 3~4세가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미래 에너지 전환과 정유·석유화학 중심의 사업 재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GS그룹은 26일 부회장 승진 2명, 대표이사 선임 9명, 사장 2명, 부사장 4명, 전무 5명, 상무 18명, 전배 1명 등 총 38명 규모의 2026년도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허용수·허세홍 두 부회장의 승진이다. 3세 경영인 허용수 부회장은 2016년 GS에너지 에너지·자원사업본부장, 2017년 GS EPS 대표이사, 2019년 GS에너지 대표이사를 맡으며 그룹 에너지 사업의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4세 경영인 허세홍 부회장 역시 GS칼텍스 싱가포르법인장, 생산기획공장장, 석유화학·유통유사업 본부장 등을 거치며 정유·석유화학 밸류체인 전반을 경험, 사업 구조 혁신을 주도해온 인물로 꼽힌다. 두 사람의 전면



허용수 부회장

허세홍 부회장

배치는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 흐름 속에서 적극적 사업기회 창출과 위기 대응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GS그룹은 또 이번 인사에서 주요 계열사 대표직에 젊은 경영진을 폭넓게 배치했다. 김성원 GS글로벌 대표, 허철홍 GS엔텍 대표, 황병소 GS E&R 대표, 박민수 GS P&L 대표, 김옥수 자이C&A 대표 등 1970년대생 대표이사가 대거 기용됐다.

조직 운영 방식도 현장 중심으로 재편된다. GS에너지, GS리테일, GS글로벌, GS건설 등 주요 계열사의 핵심 인력을 자회사 사업 현장으로 전진 배치했다. 본부와 현장 간 거리를 좁히고 실행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에서 인력 배치 전략이 추진된 것으로 분석된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모비스, 임직원 혁신 아이디어 쏟아졌다

용인 기술연구소서 ‘엠피즈 페스타’
역대 최대 1170건 아이디어 총결산

현대모비스가 미래 자동차에 대한 임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대모비스는 경기도 용인에 위한 기술연구소에서 ‘2025 엠피즈 페스타(M. Fields Festa)’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엠피즈 페스타는 현대모비스 국내외 임직원들의 기술 아이디어 제안 플랫폼으로 올해로 6년째를 맞는다. 엠피즈 페스타는 아이디어 공모부터 수상작 선정까지 모든 과정이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다.

매년 수백 건의 혁신 아이디어가 접수되는데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1170건의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전화와 전

장, 사시·안전, 커넥티비티 등 모빌리티 핵심 분야 아이디어들이다. 지난해 아이디어 제안 건수보다 25% 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난 6년간 누적 아이디어 제안 건수는 무려 5600여 건에 달한다.

이날 엠피즈페스타 최종 본선 무대에는 임직원들의 많은 추천을 받고 유관 부서들의 자체 기술 검증 등을 거친 6개의 아이디어가 올랐다. 올해는 에어 서스펜션을 활용한 전기차배터리 소화시스템과 냉각 시스템 설계를 최적화한 모터 열관리 기술이 최우수 아이디어로 뽑혔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현대모비스 김동규 책임연구원은 “거창한 혁신보다는 작은 변화를 통해 사용자 편의나 기능을 개선해보자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같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중남미서 AI가전 판매량 40% 성장

세탁기 매출 80% ↑… ‘콤보’ 흥행
AI 라인업 확대 제품 경쟁력 강화
전력절감·스마트싱스 기능 호응

삼성전자가 중남미 시장 현지 맞춤형 인공지능(AI) 가전으로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AI가전의 중남미 누적 판매가 수량 기준 전년 동기대비 약 40% 성장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로 합쳐진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판매 호조에 힘입어 세탁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80% 가량 크게 늘었다.

삼성전자는 중남미 시장에서 현지 맞춤형 AI 가전 라인업을 확대하고, AI 가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AI 홈 시장을 적극 공략해왔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중남미 스마트 가전 매출 규모는 약 26억 달러로 연평균 10% 수준으로 성장해 2029년에는 약 38억 달러에 이를 것



삼성전자 상냉동·하냉장(TMF) 냉장고 모델 사진.

/삼성전자

으로 추정된다.

높은 성장률의 배경에는 스마트 홈에 대한 중남미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더불어 스마트 가전 보급률이 낮은 영향이 있다. 2025년 기준 중남미 내 스마트 가전 보급률은 약 11%로 한국 63%, 미국 18%, 유럽 16%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중남미 시장에 ‘패밀리하

브’ 냉장고와 ‘비스포크 AI 무풍 에어컨’,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 건조기 등 고도화된 AI 기능을 탑재한 최신 가전을 선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남미에서 인기가 높은 상냉동·하냉장(TMF) 냉장고, 전자동 세탁기 등 중저가 가전까지 범위를 넓혀 중남미 AI 홈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AI 가전은 스마트싱스를 통해 가전제품의 사용 전력량을 모니터링하고 전기 사용량도 절감할 수 있어 에너지 요금에 민감한 현지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 스마트싱스의 AI 기반 에너지 절감 기능 사용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자 중남미 총괄 밀레네 고메스 디렉터는 “AI 기반 가전과 스마트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남미에서 ‘집’은 삶의 리듬과 요구에 반응하는 중심 허브로 진화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프리미엄부터 실속형까지 다양한 AI 가전을 통해 중남미 스마트 홈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캐나다 잠수함 사업 ‘K-원팀’ 급부상

한달 만에 재실사… 韓 역량 주목
KSS-III·AI로 남기경쟁 앞서

60조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화오션과 HD현대가 조기 인도 능력과 디지털 기반 운용 기술을 앞세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한 달 만에 다시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 ‘원팀’이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산업부 멜라니 졸리 장관과 필립 라포툰 주한캐나다대사 등 대표단은 24~25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를 잇달아 찾았다. 지난달 30일 마크 카니 총리의 방문에 이어 한 달 만에 추가 실사가 이뤄진 것으로, 오는 2035년까지 빅토리아급 4척을 퇴역

시켜야 하는 캐나다가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조달 속도와 인도 역량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단은 한화오션의 장보고-III Batch-II(한국형 잠수함 KSS-III 계열) 급 동시 건조라인을 둘러보며 대형 프로젝트 수행 능력과 납기 역량을 점검하고, 방산·우주·에너지·광물 등으로의 장기 협력 구상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GRC에서는 잠수함·함정 운용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트윈·예지정비·관제 시스템 등 생애주기 관리 솔루션을 살펴보고 캐나다 해군의 운용 효율화·현대화 방향과의 접점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CPSP는 한국 ‘원팀’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의 양자 대결 구도다.

/유해운 기자 dhale@

日, 반도체 복귀 시동… ‘韓·中·대만’ 중심 생산구도 깨지나

일본 라피더스, 2027년 2공장 착공
2나노 이어 1.4·1나노급 개발 계획
日 정부,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지정
‘소부장 자체조달’ 개발속도 빨라듯

한국과 중국, 대만을 중심으로 구축된 동아시아 반도체 생산 구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국가 전략 차원에서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 강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기술 지원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라피더스가 2나노에 이어 1.4나노급 공정까지 연구개발 계획을 제시하면서 중장기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라피더스는

2027년 홋카이도 치토세 지역에 제2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다. 제1공장에서 2나노 공정을 개발 중이며 지난 7월 2나노 시제품 제작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1.4나노와 1나노급 제품의 연구·개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 정부와 민간 출자로 설립된 라피더스가 두 번째 생산거점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은 첨단 파운드리 시장 진입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도 반도체를 전략 기술로 명시하며 정책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내년 3월 이전 수립할 5개년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세제 혜택과 창업 지원 인

력 양성 우호국 협력 등 지원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면 라피더스와 TSMC 구마모토 공장 등 일본 내 생산거점의 역할도 더욱 커지게 된다.

또 현재 일본이 글로벌 시장을 선두고 있는 소부장 생태계가 이번 파운드리 진입 시도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시장의 절반 이상, 장비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토레지스트 CMP 슬러리 실리콘 웨이퍼 등 주요 공정 요소를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과 무관하게 자국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소재와 장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어 첨단 공정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인 후지필름은 지난 25일 시즈오카 공장에 차세대 반도체 소재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실험가동 완공을 알렸다. 2026년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1000억엔(한화 약 9400억원) 투자를 공언하는 등 기업 차원의 대규모 투자 역시 지속되고 있다. 월간 반도체 장비출하 지표 역시 2023년 약 2890억엔(약 2조7200억원)에서 2025년 9월 4246억엔(약 4조원)까지 증가해, 2023년 글로벌 다운사이클 이후 부진을 벗어나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받는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대만·한국이 선단공정, 중국이 생산 캐파를 주도해온 기존 3국 구도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와 장비에서 이미 두드러진 경쟁력

을 갖추고 있어, 파운드리 공정이 안정화될 경우 로직 생산 분야에서의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와 HBM 중심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의 본격적인 파운드리 진입은 첨단 로직 분야에서 새로운 장기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반 자체는 약해졌기 때문에 대만과 한국과는 큰 격차가, 중국과도 어느 정도의 격차가 존재한다”며 “다만 세계 최고 수준의 소부장 기반이 이후 제조 복귀의 큰 자산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희준 기자 nauta@metroseoul.co.kr

삼양사-세프라텍, 초순수용 탈기막 협력

국내 유일, 세계 2번째 ‘탈기막 생산’
내년 中 수처리 전시회 공동관측 전개

삼양사는 서울 종로구 삼양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세프라텍과 반도체 초순수용 탈기막(MDG)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탈기막은 물에 용해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등의 용존 가스를 제거하는 장치다. 반도체 생산의 필수재인 초순수(극히 순수한 물)는 미세한 이온이나 기체조차 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 용존 가스 농도를 극도로 낮추는 탈기막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세프라텍은 산업용 반도체 초순수용 탈기막 모듈을 개발한 국내 유일의 탈기막 전문업체로, 특수 제작한 분리막을 통해 초순수 내 용존 산소를 1ppb(10억분의 1) 이하로 제거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탈기막 생산에 성공한 기업은 미국의 3M사에 이어 국내의 세프라텍이 두 번째다. 이번 협약으로 삼양사



조영도 삼양사 PU장(오른쪽)과 염충균 세프라텍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 삼양사 본사에서 반도체 초순수용 탈기막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양사

는 수처리 소재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보다 다양한 수처리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세프라텍은 탈기막을 공급하는 동시에 삼양사의 이온교환수지 판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 판로 확대에 나선다. 내년 6월에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수처리 관련 전시회 ‘WATERTECH CHINA 2026’에 참가해 공동으로 판촉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삼양사 조영도 워터솔루션(WS) PU장은 “세프라텍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반도체 초순수용 탈기막을 개발한 국내 선두기업으로, 삼양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파트너라고 보고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삼양사는 해외 수처리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는 한편, 초순수용 소재 국산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가볍게 떠나요” 항공업계, 외투보관 서비스

대한항공·아시아나, 해외출국 승객
인천공항서 최대 5일간 무료보관

국내 항공사들이 겨울철 따뜻한 국가를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두꺼운 외투를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재개한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이 ‘코트룸’ 서비스를 실시한다.

우선 대형 항공사(FSC)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서비스를 진행한다. 코트룸 서비스는 겨울철 급증하는 동남아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한항공은 2005년, 아시아나항공은 1999년부터 매년 겨울 시행해왔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과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승객에게 1인당 외투 한 벌을 최대 5일간 보관한다. 5일 초과 시에는 인천공항 기준 한 벌당 2500원, 김해공항 기준 한 벌당 4000원의 추가 보관료가 부과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승객의 겨울 외투를 무료로 보관해주는 ‘코트룸(Coatroom)’ 서비스를 재개한다.

매한 승객을 대상으로 외투 한 벌을 최대 5일간 무료로 보관해 준다. T1 출발 승객은 지하 1층 서편 끝에 위치한 ‘크린업에어’에서 탑승권을 제시하고 외투를 맡길 수 있고, 보관된 외투는 동일한 장소에서 보관증으로 찾을 수 있다. 이 서비스 또한 24시간 운영된다.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14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날짜 이후에는 T2 지하 1층 교통센터 입구의 크린업에어 매장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BYD코리아, 오토 송파전시장 오픈

연내 전국 30곳에 전시장 확대

BYD코리아가 서울 동남권 고객과의 접점 확대를 위해 서울 송파구에 ‘B YD 오토 송파 전시장’을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BYD코리아는 전국 24곳에서 BYD 승용차 전시장을 운영하게 됐고 연말까지 전국 30곳으로 전시장을 확대해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송파·위례·문정·강동 등 송파권역은 서울 동남권에서도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30·40대 젊은 부모들이 많아 자녀의 통학, 근거리 이동 등 실용성을 갖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BYD코리아는 소형 전기 SUV ‘아토3’와 중형 전기 세단 ‘쉴’, 중형 전기

SUV ‘씨라이언 7’ 등 올해 출시한 차량 3종으로 송파 소비자들을 공략할 방침이다.

이번 전시장 개관을 기념해 내달 7일까지 송파 전시장에선 BYD의 프리미엄 브랜드 ‘양왕’의 대형 전기 SUV ‘양왕 U8’을 특별 전시한다. 최첨단 전동화 기술이 적용된 양왕 U8은 모래 언덕 주행, 비상시 수상 부유 운행도 가능한 하이엔드 모델이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송파 전시장은 전기차 수요가 높은 서울 동남권 고객들이 보다 쉽게 BYD 브랜드를 접할 수 있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 전시되는 양왕 U8을 통해 BYD가 선보이는 기술력과 모빌리티의 내일을 미리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신일전자

가습기·온풍기·히터 겨울가전 3종 선보여

신일전자가 본격적인 추위와 건조한 날씨에 맞춰 겨울철 실내 환경 관리를 위한 계절 가전 3종을 선보였다.

신일전자는 100° C 가열식 물명가습기, 욱실 PTC 온풍기, 컨벡터 히터 등 겨울철 수요가 높은 제품군을 중심으로 난방·가습·전력 효율 니즈를 대응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열식 물명가습기’는 물을 100° C로 가열해 위생적인 수증기를 공급한다.

내열 강화유리 물통, 본체·뚜껑 완전 분리 구조로 세척이 용이하며 전도 스위치·차일드락 등 4중 안전장치를 적용했다. 저소음(34dB) 설계와 무드등 기능을 갖춰 취침 시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정희준 기자

SK스피드메이트 ‘스피드 오토케어’ 출시

카카오 AI ‘카나나’와 연동

자동차 관리서비스 기업 스피드메이트가 AI 에이전트를 통해 운전고객의 일상에 스며든다.

SK스피드메이트는 카카오의 AI 에이전트 앱 서비스 ‘카나나’와 연동되는 차량 정비 AI 메이트인 ‘스피드 오토케어’를 출시해 AI를 활용한 차량 관리 지원 및 정비 서비스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카나나 이용자가 ‘스피드 오토케어’를 통해 차량 관리에 대해 질문하면 알맞은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주변 스피드메이트 매장 추천, 실시간 예약, 정비 항목 안내까지 지원함으로써 꼼꼼하고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돕는다.

‘스피드 오토케어’는 지난 10월 양사

간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실제 서비스로 구현된 것이다. 스피드메이트는 정비를 원하는 고객에게 AI 이용 경험을 제공하고 카카오는 카나나 고객에게 온-오프라인 연결을 통한 완결적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카카오의 앱 서비스 카나나는 AI 기능을 통해 능동적으로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연계한 ‘스피드 오토케어’로 스피드메이트의 안전하고 편리한 차량관리 서비스가 제공돼 고객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SK스피드메이트는 이번 서비스 개시 기념으로 카나나의 ‘스피드 오토케어’를 통해 정비 예약한 고객 대상 엔진오일 할인권을 선착순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국인의
패스트 푸드를
세계인의
베스트 푸드로

| 리아 새우 |

| 리아 불고기 |



TASTE THE FUN
LOTTERIA™

“ESG 기반 업무몰입 플랫폼 재편… 내년 IPO 속도 낸다”

속깊은 人터뷰

황민재 위편 부사장

기업 복지 플랫폼 위편이 ESG 기반의 ‘업무몰입 기반 생산성 플랫폼 워크인게이지먼트(WorkEngagement)’ 전략을 강화하며 내년 기업공개(IPO)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ESG 요구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물류 효율화, 폐기물 감축, 안전보건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플랫폼 운영 방식이 한 단계 고도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황민재 위편 부사장은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복지 시장은 단순 편의 제공에서 벗어나 직원 경험과 생산성을 높이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며 “ESG 체계를 갖춘 워크인게이지먼트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이 기업공개 과정에서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기업 복지 시장에서는 ‘ESG 기반 업무환경 관리’가 새로운 기준으로



위편은 도시락 플라스틱 재활용 프로젝트, PB 상품 포장재 경량화, 사내 카페 다화용 컵 도입 등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메트로신문



대기업 중심 ESG 요구 급상승
물류효율·폐기물 감축 핵심과제
전기차 전환으로 비용절감 뚜렷

사내 안전보건 요구수준 대폭 강화
행동데이터는 전면 비식별 처리
반복매출 기반 수익성 전환 가능

자리 잡고 있다. 위편은 이에 맞춰 워크인게이지먼트 개념을 중심으로 서비스 전반을 재정비하고 있다. 워크인게이지먼트는 직원 경험과 업무몰입도를 높여 조직 생산성을 개선하는 개념으로, 단순 복지가 아닌 업무환경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말한다.

황 부사장은 “복지 서비스 이용 패턴과 조직 구성원의 근무환경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면 기업의 비용 효율화와 직원 만족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며 “위편은 이 개념을 국내 기업들의 실무 환경에 맞게 구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편은 현재 8000개 고객사와 40만 명의 임직원 접점을 확보하고 있다. 스낵, 조식, 사내카페, 벤딩 등 오피스 복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반복매출 비중은 올해 기준 90%를 넘었다. 고객 구성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초반에는 스타트업과 IT 기업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금융권, 제조·중공업, 물류 대기업까지 고객군이 확장되며 ESG 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황 부사장은 “예측 가능한 반복매출

기반은 플랫폼 전환의 토대”라며 “2026년까지 워크인게이지먼트 비중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도록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물류 효율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위편은 지난해 물류 전문 자회사인 위편풀필먼트를 인수해 전국 6500개 네트워크를 확보했고, 자체 배송망의 경로 최적화와 동선 자동화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전기차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전기차 전환 후 연간 800만 원 수준의 유투비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비교적 용이해 도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절감과 친환경 포장재 전환도 중요한 ESG 지표다. 위편은 도시락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PB상품 포장재의 경량화율을 높이고 있다. 사내 카페 서비스에는 다화용 컵 사용을 늘리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AWS, 카카오톡 등 일부 글로벌·대형 고객사는 ‘노 플라스틱’ 기준을



요구하며 ESG 항목을 더욱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황 부사장은 “고객사 ESG 기준이 서비스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준까지 올라와 앞으로는 친환경 정책을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 관리 강화도 필수 과제다. 위편 직원은 기업 사내 공간에서 진열·이동·보급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안전 리스크가 상시적으로 존재한다. 일부 대기업은 자체 안전보건 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대응 체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위험 요인 점검, 안전 장비 표준화, 현장 인력 매뉴얼 정비 등이 요구된다.

이에 “HD현대 등은 작업 동선·작업자 보호 기준을 자체 규정에 맞춰달라고 요청하며 ESG 차원의 안전보건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전담 조직 구성과 외부 전문가 진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보안 역시 시장 신뢰 확보의 핵심이다. 위편에드는 직장인 행동·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와 샘플링을 제

공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비식별화와 최소화집 원칙이 필수다.

황 부사장은 “행동 데이터는 전부 비식별화 처리해 계약 범위 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피스 기반 브랜드 샘플링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음료·건식 브랜드 중심으로 연말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IPO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히는 수익성 개선도 가시적이다. 위편은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1%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별도 기준 6%까지 상승했다. 물류 효율화, 상품 마진 개선, 자동 큐레이션 시스템 도입이 반영된 결과다. 그는 “연결 기준 올해 영업이익 목표는 80억원으로 작년보다 네 배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복매출이 기반이 되는 구조여서 매출 증가 대비 비용 상승 폭이 크지 않은 ‘레버리지 모델’이 자리 잡은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최근 2년간 진행한 5개 인수·합병 M&A에 대한 변동성 우려도 있지만 황 부사장은 “인수 기업 대부분이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인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워크인게이지먼트 확장을 위한 H·R·SaaS 분야 기업의 인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황 부사장은 워크인게이지먼트 시장에 대해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직원 경험과 생산성, 조직 운영 효율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요소 전반을 위편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ESG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업무환경 시장에서 워크인게이지먼트 기반 생산성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SKT-삼성전자, 6G AI-RAN 개발 본격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 강화 AI 기반 핵심기술 공동연구·실증

SK텔레콤이 삼성전자와 6G 이동통신 기술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기반 무선접속망(AI-RAN) 공동 연구를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양사는 AI 기반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6G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을 추진했으며, ▲AI 기반 채널 추정 ▲분산형 다중 안

테나(MIMO) 송수신 ▲AI-RAN 스케줄러 및 코어 네트워크 기술 등 핵심 기술을 공동 연구·실증한다.

이번 공동 연구는 SK텔레콤 네트워크기술담당과 삼성전자 삼성리서치가 주도한다. SK텔레콤은 전국망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데이터 제공 및 실증 인프라 구축을 맡고, 삼성리서치는 AI 채널 추정 모델 개발과 분산형 MIMO 알고리즘 고도화를 담당한다.

AI 채널 추정 기술은 건물·벽 등 장애물이 많은 환경에서도 AI가 전파 왜곡

을 예측·보정해 데이터 전달 정확도를 높인다.

분산형 MIMO 송수신 기술은 여러 기지국과 안테나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에서 안정적인 초고속 통신을 지원한다. AI-RAN 스케줄러 및 코어 네트워크 기술은 네트워크가 데이터를 전송할 시점과 경로를 스스로 판단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돕는다.

양사는 AI-RAN 얼라이언스에서 지난해부터 기술 협력을 이어왔다. 6월 핀



(사진 왼쪽부터) 류탁기 SKT 네트워크기술담당과 정진국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이 협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SKT

란드 총회에서 AI 채널 추정 기술을 공동 제안해 승인받았고, 11월 보스턴 총회에서는 연구 성과를 공개한 바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 제작 단계 단순화

카카오가 이모티콘 창작 플랫폼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를 전면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변화한 창작 환경을 반영해 제작 편의성과 작업 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신규 창작자 유입을 넓히는 데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는 이번 개편을 통해 파일 일괄 업로드, 순서 편집,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해 제작 단계를 단순화했다.

임시 저장, 제출 후 24시간 내 취소 기능도 도입해 작업 유연성을 높였으며, 제작 규격을 간소화해 초보 창작자도 쉽게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작업 관리 기능도 강화됐다. 대시보드와 알림 기능을 통해 작업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고, 제안부터 출시까지 모든 작품을 모아볼 수 있는 ‘내 작업실’ 메뉴가 새롭게 추가됐다. PC·모바일 환경 모두에 최적화된 UI를 적용해 기기 제약도 줄였다.

2024년부터 베타로 운영해 온 미니 이모티콘도 이번 개편으로 정식 도입됐다.

/최빛나 기자

KT-디지털브릿지, AI 데이터센터 협력

KT는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투자 기업인 디지털브릿지와 AI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AI 데이터센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은 25일 KT 광화문 빌딩에서 열렸으며, KT 정우진 전략·사업컨설팅

부문장과 디지털브릿지 안태은 아시아·태평양(APAC) 부문 대표가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을 공동 추진하고, 급증하는 APAC 지역의 AI 데이터센터 수요에 사전 대응할 계획이다.

디지털브릿지는 미국에 본사를 둔 디

지털 인프라 전문 투자 기업으로, 약 108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글로벌 통신사 및 네트워크 기업과 협업체에 왔으며, 최근에는 초대형 데이터센터 설계 기업 투자 및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사 인수를 통해 AI·클라우드 인프라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양사는 ▲국내 AI 데이터센터 공동 개발 ▲해외 데이터센터 사업 협력 ▲데이터센터 ESG 기술 협력 등을 중심으로

협업한다.

국내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공동 추진하고, 양사 데이터센터 간 연결성과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해외에서는 APAC 시장 조사를 공동 수행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KT가 디지털브릿지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김서현 기자

“지금도 韓금융 카이로스… 금투협, 전략 총괄 플랫폼 돼야”

(기회의 시간)



인터뷰

황성업 신영증권 사장

금투협회장 도전, 전략 플랫폼 강조
38년 원클럽맨… 자본시장 파이 확대
대·중소 이해 조율하며 균형점 모색
IMA·발행어음·BDC 생산금융 강화
퇴직연금·ISA 재설계·규제 정밀화

“지금 한국 금융은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여있는 가계 자산은 증시와 연금시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골든타임에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기회의 시간)’를 놓치면 또 한 세대가 허비될 수 있습니다.”

황성업 신영증권 사장은 금투협회장 출마 배경에 대해 “금융투자협회가 단순 금투업계 민원 창구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골든타임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전략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38년 경력 ‘원클럽맨’인 황 사장은 리테일·IB·WM·자산운용·신탁 등을 모두 경험한 이력과 ‘여의도 사장단’ 회장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업권이나 몇몇 대형사의 이해가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 파이’를 키



금융투자협회 회장에 출마한 황성업 신영증권 사장이 메트로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우는 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CEO를 ‘Chief Executive Officer’가 아니라 ‘Connecting Executive Officer’라고 정의했다. 즉 사내·사외 이해관계자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은 책임자란 뜻이다. 그의 이번 선거 슬로건도 “먼저 경청하고, 행동하며 이끈다(Listening First, Leading with Action)”다.

황 사장은 지난해부터 증권사 사장단

모임인 ‘여의도 사장단’ 회장을 맡아 업계 CEO들과 매달 현안을 논의해왔다. 그는 “매달 업계 CEO들을 직접 만나 조율하는 ‘현장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형사·중소회사 간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서 균형점을 찾는 경험이 금투협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사장이 금투협이 맡아야 할 첫 역할로 꼽은 건 IMA·발행어음·BDC 등을 통한 ‘생산적 금융’ 생태계 강화다. 그는 대형사는 모험자본 공급과 신시장 개척을,

중소회사는 지역·초기기업 금융을 맡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정부·국회·연구기관과의 소통 채널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장기 어젠다에 대응할 협회 연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연금·세제 개편은 더욱 시급한 영역으로 꼽았다. 그는 “지수 5000 자체보다 중요한 건 ‘5000이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경제 체력’”이라며, 초고령화·저성장·부동산 편중이라는 구조적 약점을 지적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는 장기투자인데, 적립금의 80% 이상이 원리금 보장형에 묶여 있다”며 TDF·밸런스펀드 중심 재편과 상품 변경 심의 단축을 요구했다. ISA 역시 “청년·신혼부부·마이너스통장 세대가 중·장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계좌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까지 포함한 ‘주니어 ISA’로 생활 속 장기투자 통로를 넓히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최고세율 25% 수준을 적극 지지한다”며, 배당 확대가 소비·증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사장은 최근 자본시장의 핵심 과제

로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꼽으며, “사고가 날 때마다 모든 상품과 투자자에게 규제를 씌우면 결국 아무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중의 사례를 들며 규제의 정밀조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작은 건 풀고, 큰 건 확실하게 막는 방식이 시장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다.

가장 먼저 손볼 부분은 ‘금융 언어’라고 했다. 약관·설명서가 감독 리스크 회피용 문장으로 가득한 현실을 지적하며, 협회가 쉬운 용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현재 금융 환경에 대해 그는 미·중 갈등, AI 경쟁, 고령화·저성장이 동시에 얹힌 “사방이 편할 게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지금이야말로 은행 중심 대출경제에서 투자는 은행 중심 자본시장 경제로 넘어갈 “전환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금투협을 “민원 창구를 넘어 시장·정책·연금·세제 과제를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는 ‘정리자·조율자’”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황성업 체제에서 금투협은 은행 중심 금융을 넘어 자본시장 중심 구조로 가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퇴직연금 고수’ 실적배당 80%로 운용

1년 수익률 38.8%… 평균 최대 9배
주식형 70%·대기자금 8.6% 비중
국내 테마·해외 빅테크 ETF에 집중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가입자, 이른바 ‘퇴직연금 고수’들의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실적 배당형 상품 비중을 80% 가까이 유지하며 적극적인 운용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26일 발표한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백서Ⅱ-연금 고수의 투자 포트폴리오 살펴보기’에 따르면 고수들의 최근 1년 수익률은 38.8%, 최근 3년 연평균 수익률은 16.1%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자 평균(1년 4.2%, 3년 4.6%)의 3.5~9.2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은행·증권·보험 3개 권역 대표 금융사에서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적립금이 1000만원 이상인 확정기여(DC)형 가입자를 선별한 뒤, 연령대별 수익률 상위 100명씩을 뽑아 총 1500명을 ‘퇴직연금 고수’로 정의했다.

금감원이 이들의 자산 구성을 분석

한 결과, 실적배당형 비중은 79.5%에 달해 일반 가입자와 확연히 차이를 보였다.

반면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형 비중은 20% 수준에 그쳤다.

대기성 자금도 평균 8.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시장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여유자금 성격”이라고 해석했다.

실적배당형 가운데서는 주식형 펀드 비중이 70.1%로 핵심 투자처로 나타났다.

혼합채권형 펀드 비중이 2번째로 높은데, 이는 퇴직급여 법령상 위험자산 투자 한도(70%)를 준수하면서 주식 투자 비중을 최대한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투자 지역별로는 국내 펀드 비중이 61.6%로 해외(31.8%)의 두 배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고수들은 국내 증시 상승 가능성을 높게 판단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 펀드에 투자된 적립금은 조선,

방산, 원자력 등 테마형 상품에 집중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펀드는 미국 빅테크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비중이 가장 높았다.

펀드 형태별로 보면 ETF가 75.1%, 공모펀드가 24.9%로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ETF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

금감원은 고수들의 투자와 관련해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을 적극 활용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다 “특히 지수형 펀드가 아닌 테마형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가입자가 동일 전략을 따르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대부분의 근로자는 금융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생업으로 바빠기 때문에 고수들처럼 적극 운용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국내 퇴직연금의 80% 이상이 여전히 원리금보장상품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한국투자증권,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시상식

국내외 대학생 6298명 참여
총 1770만원 장학금 수여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제14회 뱅킹스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대학생 6298명이 참가했다. 이 중 누적 수익률이 가장 높은 개인 참가자 20명과 6개 팀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돼 총 177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국내주식 리그 개인 부문 1위는 성준규(동국대·4학년)씨가, 팀 부문 1위는

‘세투연자산운용B’팀이 차지했다. 해외주식 리그에서는 김병주(전주대·3학년)씨와 ‘경부경성대전자교’팀이 각각 개인 및 팀 부문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자 중 개인 수익률 상위 5명에게 향후 2년간 한국투자증권 입사지원시 1회에 한해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채용 연계형 인턴 지원시에는 인적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허정윤 기자

AI 조정에도 서학개미, 반도체 끌어 담았다

해외주식 Click

미국 기술주 전반이 인공지능(AI) 버블론으로 흔들리는 사이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반도체와 빅테크를 중심으로 저점 매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정 국면에서도 반도체 관련 레버리지 종목까지 적극적으로 담으며 AI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1월 19~25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X ETF’로 3억5878만달러를 순매수했다. 해당 상품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서학개미들은 AI 버블론으로 인해 주춤하는 미국 증시에서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선호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사들인 종목도 알파벳(3억2669만달러)과 엔비디아(1억9165만달러)로 AI 관련 종목에 투심이 쏠렸다. 알파벳은 의결권이 없는 클래스C(GOOG) 주식도 4558만달러 순매수했으며,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그레닛셰어즈 2.0X 롱 엔비디아 데일리 ETF’도 5332만달러 담았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AI 고령이 우려로 인해 AI 관련주의 조정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은 단기 조정 국면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 모습이다. 이달 들어 20일(현지시간)까지 엔비디아는 10.8%, 마이크로소프트 7.6%, 오라클은 25.0%씩 떨어지면서 기술주의 약세가 이어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2.1% 급락했다.

다만 이번 주 들어서는 구글의 AI 서비스 제미니가 3.0 관련 기대감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고개 들면서 미국 증시도 다시 강세를 보였다. 뉴욕 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지난 21일부터 3거래일 연속 일제히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5.7% 급등했다.

특히 24일에는 제미니가 3.0에 대한 호평에 힘입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6.31% 급등했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미국 증시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다. 더불어 기술주 전반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엔비디아도 2.05% 올랐다.

반도체 3배 ETF, 지난주 순매수 1위 알파벳·엔비디아 등 빅테크 매수 확대 오라클·브로드컴 실적이 반등 변수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과 성적 증명에 시장의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오라클, 브로드컴 등 주요 기술주의 실적이 반전 흐름을 굳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AI 밸류체인 주가 전반에 기술적 부담이 오랫동안 누적돼 있었기 때문에 기간이든 가격이든 이를 소화할 조정은 필요했던 상황”이라며 “12월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한다면 위험을 제어할 수 있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지명 변수는 후퇴된 금리 인하 기대를 되돌리며 반등 트리거 중 하나로 보인다”고 봤다.

/신하은 기자 godhe@

허위·과장정보 피해 가맹점주에 손배소 지원 ‘배상 판결’ 이끌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무료 소송지원제도 구제 사례
“中企 법률조력 서비스 확대”

카페 가맹본부의 ‘월 매출 최소 1800만원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창업했다가 피해를 본 가맹점주가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해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경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설명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됐다.

A씨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올해 1월 8일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경고조치를 내렸다.

가맹사업법 해당 조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정원은 이후 A씨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을 결정, 변호인단을 구성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9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항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약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공정위 제재를 받더라도 피해사업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해야 하

는 부담이 컸다. 이번 사례는 조정원의 무료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실질적 구제가 이뤄진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조정원의 소송지원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가맹점주·대리점주를 대상으로 변호인단을 제공해 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정제재로는 부족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실현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라는 평가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조정원은 분쟁 초기단계인 법률문서 작성지원(분쟁조정신청서 및 공정위 신고서작성 지원 등)부터 최종 피해구제 절차인 소송지원제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조력 서비스를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가스공,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장관상’

복지부·사회복지협의회 공동주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희망온’ 등
최근 3년간 사회공헌 최고등급 달성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인정패를 수여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나눔 축제로, 지난 2019년부터 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그간 ESG 경영을 핵심 가치로 상생협력 브랜드 ‘희망온(On, 溫민)’을 구축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 왔다.

특히 가스공사 사업 특성을 반영한 저소득 가구·노후 사회복지시설 대상



최충식 가스공사 경영지원본부장(가운데)이 지난 25일 열린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가스공사

‘열효율 개선 사업’, 공기업 최초로 도입한 ‘취약계층 가스요금 지원 대신신청 제도’,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LnG(Leading&Growing) 장학사업’ 등을 역점 시행 중이다.

가스공사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지역사회공헌인정’을 받은 가운데, 최근 3년간 꾸준히 최고 등급(S)을 달성하며 이번에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국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펼쳐 온 노력들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돼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 추진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익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충남 아산 지역을 찾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

“AI 위험성 커져… 방역관리 강화해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충남 아산 소재 계란유통센터 방문

정부는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성이 예년에 비해 크다며 철저한 방역관리를 주문했다. 이번 동절기 전국 각지의 발생 빈도가 잦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일 충남 아산 소재 계란유통센터(식용란 선별포장업소) 및 곡교천을 방문해, 가금농장 방역관리 상황과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 드론 및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소독 시연도 지켜봤다.

송 장관은 “겨울 철새 서식조사 결과 11월에 약 133만 수가 국내에 도래해 전월(10월 63만 수) 대비 111% 증가했고,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3개의 혈청형(H5N1, H5N6, H5N9)이 확인

되는 등 과거보다 위험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소독 등 한층 강화된 방역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기 화성과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충남도의 방역 추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송 장관은 “충남지역은 산란계 사육두수가 많고, 산란계 밀집사육지역인 천안 용정·가송 2개소에서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컸다”고 했다. 이어 “이번 동절기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사출입 시 강화할 야생조류 방역관리 방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협, 먹거리 신뢰 위한 ‘식품안전리더’ 발족

하나로마트 소속 직원 54명 선정

농협경제지주가 ‘식품안전리더’를 발족하고 전국 매장 내 식품안전 자율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26일 농협에 따르면 식품안전리더에는 우수 농축협 하나로마트 소속 직원 54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관내 농축협 판매장의 식품안전 자율관리 체계 구축에 앞장서게 된다.

지난 24일 대전에 열린 발대식에서는 ▲식약처 농산물 안전관리정책 동향 ▲경제지주 식품안전 지원사업 소개 ▲현장관리 우수사례 공유 ▲지역별 전문 담당자 매칭 및 팀빌딩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천일 품목지원본부장, 장지윤 식품지원부장, 농축협 식품안전리더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 안전정책과, 식품안전솔루션 위탁업체 세스코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농협은 ▲내·외부 교육 이수 ▲자격증 취득 ▲식품안전 리스크 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 식품안전 관련 주요 활동에 대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식품안전리더를 대상으로 표창 수여와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의 식품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여 신뢰받는 농협경제지주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전, 데이터센터 화재 대비 대응훈련

기후부·국정원·소방서 합동진행

한국전력은 지난 25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데이터센터 화재 대비 소방서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전 데이터센터는 서버와 스토리지 등 전력용량 8MW(메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시스템을 수용하는 핵심 기반 설비다. 전력설비 감시제어와 대국민 서비스 등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모든 ICT 자원을 운영하고 관련 데이터를 제

장·처리·관리한다.

이번 훈련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정보원, 나주 소방서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전형 합동훈련으로 진행됐다.

데이터센터 지하 축전지실의 배터리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신고 및 비상대피 ▲전용 소방장비를 활용한 초기대응 ▲소방서와 합동 화재 진압 등 실질적인 화재 대응능력 향상

에 중점을 뒀다.

한전은 최근 데이터센터의 배터리를 열 안정성이 높은 리튬인산철 소재로 전면 교체했다. 이 소재는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화재나 폭발 위험이 매우 낮다. 또 데이터센터의 배터리실과 서버실을 분리해 별도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에도 데이터 보호에 안정적이다.

이같은 선제적인 안전조치에도 한전은 흑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 가능한 최악의 재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시행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공, 튀르키에서 226만弗 수출협약

20개 기업과 농업박람회 참가

한국농어촌공사가 ‘2025 튀르키예 안탈리아 농업박람회’에서 총 226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농기자재 기업 20개사와 한국관을 운영했다.

공사는 지난해 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이뤄낸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참가기업 확대’와 ‘내실 있는 상담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참가기업을 10개사에서 20개사로 대폭 늘렸다. 또 현지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구매기업 수출 전략 수립, 구매기업 사전 매칭, 기업별 통역 배치 등을 통해 원활한 상담을 밀착 지원했다.

그 결과, 튀르키예 현지에서 506건(291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으며 총 13건, 226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는 지난해 성과 대비 2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세종=김연세 기자

G 그랜드침대

그랜드침대 매트리스
**편안함이
다르다!**



“작은 디테일까지 고려한 설계로, 깊은 숙면을 선사합니다”

G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경북도, 포스트 APEC 시대 ‘3대 성장축 전략’ 추진 본격화

韓 주도 ‘아·태 AI 센터’ 유치
‘경북 글로벌 CEO 서밋’ 창설
국제 공동창작 플랫폼 구축도

경북도는 APEC 2025 KOREA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축적한 국제 네트워크와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연결해 국제협력, 산업전환, 혁신생태계가 아우러진 글로벌 혁신경제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경북은 APEC을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 무대에 올랐다. 1700여명의 세계 경제인을 비롯해 3만 명이 경주를 찾았고, 13조 8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7조 4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록하며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경북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APEC 의제와 연계한 지역 특화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산업과 경제구조 변



지난 19일 개최된 포스트 APEC 추진 전략 보고회.

화를 이끌 ‘3대 성장축 전략’을 본격 추진해 포스트 APEC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 성장축은 ‘아·태 AI 센터’ 유치 전략이다. APEC 정상들은 AI를 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고 ‘APEC AI 이니셔티브’를 채택했으며, 한국이 주도하는 아·태 AI 센터 설립을 공식화했다.

포스텍을 비롯해 한국로봇융합연구

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제조업R&D 지원센터 등 세계적 연구기관이 집적된 산학연 협력 생태계 역시 경북의 강점으로 꼽힌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AI 윤리, 표준, 정책, 인재양성 등 AI 국제논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아·태 AI 센터를 유치해 글로벌 AI 공동체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다.

두 번째 성장축은 ‘경북 글로벌 CE

O 서밋’ 창설이다. 경북도는 APEC 개최로 국제도시로 부상한 경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CEO, 산업 전문가, 정책 리더들이 참여하는 상설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서밋은 교류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투자유치와 산업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성장축은 ‘APEC 퓨처스퀘어’ 조성이다. 경북도는 APEC 성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해 경주엑스포대공원 일원에 개방형 국제 공동창작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4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공간에는 디지털휴먼, 3D 콘텐츠 제작 인프라, AR·VR·MR 융합 장비 등 실감형 콘텐츠 제작 시설이 들어선다. 이를 기반으로 APEC 회원국 대상 공동창작 지원과 국제협업 프로그램, 인력 교류 확대 등 글로벌 창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대구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 1위

대구시가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에서 취업률 67.8%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55.2%보다 12.6%p 높은 것으로 전년도 65.3% 대비 2.5%p 상승했고, 전국 평균은 지난해 대비 0.1%p 소폭 하락한 반면, 대구는 2.5%p 올랐다.

특히 진로 미결정자 비율이 1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현장 중심 직업교육 정책과 지역사회·산업계와 협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철곡군

한끼분량 ‘프리미엄 철곡 할매쌀’

경북 철곡군이 두유처럼 한 팩씩 뜯어 쓰는 소포장 프리미엄 쌀을 선보였다.

‘프리미엄 철곡 할매쌀’은 한 끼 분량(300g)을 진공 포장해 음료수 팩처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칼집을 따라 잘라 밥솥에 붓기만 하면 된다. 1·2인 가구의 생활 패턴에 맞춘 것이다. 품종은 ‘미호쌀’이다. 윤기와 탄력이 좋아 전체적인 밥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팩 기준 3인분이다. 20팩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는 한달치 식량이 된다.

/철곡(경북)=김준한 기자 kih9@

정읍시

260곳에 ‘안심 불빛’ 설치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어두운 골목길과 생활 주변 취약지에 ‘안심 불빛’을 설치하는 사업을 연말까지 진행한다.

올해 읍·면·동에서 접수된 위험지역 260곳에 총 4억원을 투입해 고효율 LED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정비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야간 보행 안전 강화와 함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노린 정읍시의 주요 생활 안전 인프라 개선 정책으로 꼽힌다.

시는 LED 교체·설치가 마무리되면 어두운 골목과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야간 범죄 예방에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전북)=양수영 기자

영덕군

내년도 본예산 6136억 편성

영덕군(군수 김광열)이 2026년도 영덕군 본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35억원 줄여든 6136억원으로 편성했다. 군은 재정 운용에 부담을 준 지난 3월 경북 산물의 여과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으며, 관행적인 행정 경비를 과감히 줄이는 한편,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고흥군, 1.6조 투입해 글로벌 우주산업 허브 조성

2031년까지 24개 핵심사업 추진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등 조성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기지를 품은 전남 고흥군이 뉴스페이스 시대 글로벌우주항으로 도약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2월 이 지역을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했다. 2031년까지 총 1조 6084억원을 투입,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민간 발사장·기술사업화센터 등 24개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 봉래면 예내리 일대에 1753만㎡ 규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3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발사체 기업 입주 공간과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시설 부지 구축을 골자로 한다. 38개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민간 투자자가 이



고흥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감도.

여지고 있다.

국내 상업 발사 서비스시장 개척에 기여 할 민간발사장과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설립에도 2030년까지 1480억원을 투입한다.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국가 안보와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방위성 전용 발사시설 구축도 추진 중이다. 민간기업의 다양한 발사체 엔진 개

발 지원을 위한 엔진연소시험시설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인재양성과 우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조성한다. 대한민국 우주 역사를 전시하고 우주과학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우주산업 생태계의 또다른 전환점이 될 제2우주센터 건립도 국정과

제로 반영됐다. 전남도는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재사용 발사장을 포함한 첨단 발사장을 갖춘 제2우주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주산업 기반이 되는 SOC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고흥~광주 간 고속도로의 경우 정부의 제3차 국가고속도로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는 한편 경전선 별교역에서 지선을 연결하는 우주선 철도도 구상중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주변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연구개발·시험평가·인증지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을 펼쳐 우주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고흥(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KTX 경주역’ 역세권 개발 추진 속도

투자선도지구 지정신청서 제출

KTX 경주역 역세권 개발이 국토교통부 심의를 시작하며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주시는 경북도와 함께 ‘경상북도 경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며 역세권 개발의 첫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경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는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KTX 경주역 주변을 경주의 새로운 도시 거점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다.

개발 면적은 약 29만평(96만 1,000㎡)이며,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함께 들어서는 새로운 생활권으로 조성될 예

정이다. 총사업비는 5,096억원이며, 이중 5,041억원은 민간 투자로 마련된다.

경주시는 공모 선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 환경·교통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 등 필수 절차를 순차적으로 완료하며 사업 기반을 다졌다.

지정 절차는 경북도지사가 신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계 부처 협의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다음달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승인 ▲2028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2029년 토지보상 착수 ▲2033년 부지조성 준공 등 단계별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 26만명 방문

전년대비 49% 늘어… 최대실적

올해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에 전년대비 49% 증가한 26만 명이 방문했다.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7~10월 운영한 2025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에 약 26만 6000명이 방문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제작년 대비 6배(624%) 이상 증가한 수치며 전년의 17만 9000명보다 49% 증가했다.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확대된 프로젝트다. 초기 소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연중 브랜드 행사로 성

장하며 야간관광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참여 규모도 빠르게 늘었다. 2023년 3만 6000명이던 방문객은 2024년 17만 9000명, 올해 26만 600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1개 콘텐츠가 248회 운영돼 부산 전역에서 다양한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초기에는 용두산공원과 수영강 일대 등 비전형적 공간에서 MZ세대 취향 프로그램을 소규모로 선보였으나,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검증된 콘텐츠는 상시 프로그램으로 확대됐다.

행사장은 기존 해운대·광안리 중심에서 용두산공원, 대대포 해변공원, 화명생태공원, 부산시민공원 등으로 넓어졌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캐시카우’ 화학·유통 부진… 인적쇄신 넘어 생존본능 발동

롯데그룹, 창사이래 최대 인사

케미칼, 3분기 누적손실 5096억
그룹 효자서 재무부담 1순위로
쇼핑, 3분기 당기순손실 487억
신동빈, 계열사 ‘각자도생’ 메시지

롯데그룹이 단행한 ‘부회장단 전원 용퇴’와 ‘CEO 30% 교체’라는 초강수는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그룹의 생존 본능이 발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간 그룹을 지탱해 온 양대 축인 화학과 유통이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기존의 관리형 리더십으로는 현재의 복합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신동빈 회장의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인사 칼바람의 가장 큰 진원지는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롯데케미칼의 실적 부진이다. 롯데케미칼은 중국의 대규모 석유화학 증설에 따른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창사 이래 가장 흑독한 시기를 보내



롯데가 실적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칼바람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 /롯데

고 있다. 실제로 롯데케미칼은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 5096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과거 그룹 이익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던 효자가 이제는 그룹 전체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최근 증권가에서 나돌았던 ‘롯데그룹 유통성 위기설’의 배경에도 화학 부문

의 부진과 이에 따른 계열사 지원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유통 명가의 명성도 위태롭다. 롯데쇼핑을 필두로 한 유통 부문은 내수 소비 침체와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습, 쿠팡의 독주 속에 성장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3분기 롯데쇼핑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8% 감소한 1305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3조4101억원으로 4.4% 줄어들었고 당기순손실은 487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백화점 부문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지만 경쟁사 대비 성장세가 둔화됐고, 롯데온(e커머스)은 출범 이후 줄곧 적자를 기록하며 시장 내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외부에서 영입된 김상현 부회장 체제 하에 체질 개선을 시도했으나, 급변하는 유통 트렌드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냉정한 평가가 이번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롯데지주 중심의 헤드쿼터(HQ) 체

제가 폐지된 것 역시 이러한 실적 부진과 무관치 않다. 롯데는 2021년 말 기존 비즈니스 유닛 체제를 해체하고 HQ 체제를 도입했다. 신속한 의사 결정과 계열사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각 사업군에 HQ를 두고 총괄대표가 인사·재무·전략 등 핵심 기능을 통합 운영했다.

그러나 HQ 체제는 계열사의 빠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위기 상황에서 기민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비대해진 조직이 ‘관리’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결국 신회장은 조직의 균살을 빼고 각 계열사가 ‘각자도생’의 각오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롯데가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이 되지 않는 한계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확보된 현금으로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홈플러스가 주말 4일간 제철 먹거리를 할인하는 CRAZY 4일 특가를 진행한다. /홈플러스

홈플러스

제철 먹거리 할인

CRAZY 4일 특가

홈플러스가 27일부터 30일까지 주말 4일간 제철 먹거리를 할인하는 CRAZY 4일 특가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다음 달 3일까지는 따뜻한 국물 요리 재료를 선보이는 탕!탕!탕! 페스타도 함께 연다.

CRAZY 4일 특가에서는 미국산 옥맥돼 삼겹살과 목심을 과격가에 선보인다. 7대 카드로 결제 시 딸기와 캐나다산 보맥돼 삼겹살·목심을 50% 할인하며, 특란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는 한돈 브랜드 삼겹살·목심과 농협 안심한우 구이류 전 품목을 반값에 판매한다. 제철을 맞은 남해안 생굴, 알배기 배추, 꿀밤고구마, 제주 밀감 등도 할인가에 내놓는다.

겨울철 국물 요리를 위한 탕!탕!탕! 페스타에서는 매운탕을 테마로 다양한 수산물을 할인한다. 멤버십 회원은 국내산 생물 대구, 동태, 생물 아귀, 생물 병어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손종욱 기자

CJ제일제당

‘PHA’ 상용화 가속 생분해성 빨대 등 출시

CJ제일제당이 독보적인 발효 기술로 개발한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가 국내외 산업계 전반으로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CJ제일제당은 PHA를 적용한 ‘뿔아쓰’는 생분해 위생행주, ‘생분해성 빨대’ 등을 국내외에서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PHA는 퇴비화가 가능해 ‘탈(脫)플라스틱’ 트렌드에 부합하는 미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환경에 미세 플라스틱을 잔류시키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뿔아쓰는 생분해 위생행주’는 PHA, PLA, 펄프를 혼합해 생분해성 소재로만 개발됐다. PHA를 위생용품에 적용해 상업화한 전 세계 첫 사례로 CJ제일제당과 유한킴벌리, 부직포 전문기업 유진한일 합섬 3사가 협력해 개발에 성공했다. 석유계 소재가 하나도 쓰이지 않아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 제품은 국내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45일만에 표준물질인 ‘셀룰로오스’ 대비 90% 이상이 생분해되는 결과를 얻었으며(ISO 14855 기준 충족) 시중 마트 등에서 크리넥스 브랜드로 출시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마트, 딸기 등 제철과일·홈파티 먹거리 할인

내달 3일까지 ‘윈터 해피딜 기획전’ 한우·생연어·가성비 와인 등 준비

롯데마트가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윈터 해피딜 기획전을 열고 딸기 등 제철 과일과 홈파티 메뉴, 크리스마스 용품을 최대 50% 할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팩 딸기 전 품목을 2팩 이상 구매 시 팩당 3000원 할인한다. 설향, 금실, 비타베리 등 인기 품종을 교차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팩 이상 구매 시 산 설향딸기와 타이백 설향 딸기는 팩당 1만3990원에, 상생 딸기는 1만990원에 선보인다. 금실딸기와 비타베리 딸기는 각 1만4990원에, 스마트팜 딸기는 7990원에 만나 볼 수 있다. 롯데마트는 12월 대왕, 비타킹 등 신품종을 도입해 딸기 라인업



롯데마트 제타플러스점 딸기 매대 전경. /롯데마트

을 확대할 계획이다.

딸기 외에도 신품종 실키 핑크 토마토(1kg)를 7990원에, 익혀먹는 대봉감을 9990원에 판매한다. 상생 단감은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990원에 제공한다.

연말 홈파티 먹거리도 할인한다. 1+

+ (9)등급 마블나인 한우 전 품목을 이달 30일까지 엘포인트 회원에게 최대 50% 할인하며, 호주산 와고메 와그는 30% 할인한다. 파타고니아 생연어(500g)는 2만2900원, 광어·방어·연어 모듬회(300g)는 2만9900원, 제철 봉지 굴(260g)은 7990원에 선보인다.

/손종욱 기자

신세계 센텀 스파랜드에 ‘오뚜기 라면랜드’

오뚜기, 부산에 이색체험공간 오픈

오뚜기가 조선히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부산의 대표 찜질스파인 ‘센텀 스파랜드’와 협업해 이색 체험 공간인 ‘오뚜기 라면랜드’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K-라면 문화를 스파랜드의 인기 체험 콘텐츠와 접목해 내·외국인 방문객 모두에게 새로운 K-푸드 & K-라이프스타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뚜기 라면랜드’는 한국 여행에서 필수로 꼽히는 ‘찜질스파’와 ‘라면’ 조합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형 공간이다. 실제로 스파랜드 방문객 중 약 50%가 외국인일 만큼 부산을 찾는 관광객 사이에서 찜질스파 체험

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문객들이 스파랜드에서 휴식을 즐긴 뒤 오뚜기의 다양한 라면을 직접 맛보며 한국식 라면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대표 라면 ‘진라면’을 비롯해 20여 종의 다양한 라면을 만나볼 수 있다. 방문객들은 스파랜드에서 휴식을 즐긴 뒤 다양한 오뚜기 라면을 직접 맛보며 K-라면 문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공간 곳곳에서 브랜드 콘셉트를 체험하고 이를 SNS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오뚜기 라면랜드’는 25일부터 운영 중이며 상세 정보는 오뚜기 및 스파랜드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세븐일레븐, 반도체 품은 ‘HBM 칩’ 선택

SK하이닉스와 이색협업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와 손잡고 HBM(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스낵으로 재해석한 세븐셀렉트 허니바나나 맛 HBM 칩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편의점과 반도체 산업의 협업은 이번이 업계 최초다.

이번 제품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AI용 초고성능 메모리 HBM을 언어유희를 통해 허니바나나 맛(Honey Banana Mat) 스낵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를 공략하려는 세븐일레븐과 고객 접점을 확대하려는 SK하이닉스의 니즈가 맞물려 성사됐다.

허니바나나맛 HBM 칩은 실제 반도체 칩을 연상시키는 네모난 모양의 옥수수 칩에 달콤한 허니바나나맛 크림을 입혔다. HBM의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입안에서 빠르게 퍼지는 풍미로, 나노 단위의 정밀함을 균일한 두께의 바삭함으로 표현했다.

패키지에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휴머노이드 캐릭터가 디자인됐으며, 30종의 캐릭터 스티커 중 1개가 무작위로 동봉된다. 세븐일레븐은 스티커 뒷면의 번호를 자사 앱에 입력하면 추첨을 통해 순금 10돈, 순금 1돈, 에어팟 프로3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내년 2월까지 진행한다. 또한 출시일인 26일에 맞춰 SK하이닉스 신제품 발표회 형식을 빌린 광고 캠페인도 공개된다.

/손종욱 기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급물살… “생태계 훼손·부작용 우려”

공정위·국회, 특별법 제정 나서
학계, 강제적 규제 독 될 수 있어
정책보다 자생력 키우는 방식 제안

통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대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중개수수료 상한을 두는 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탔다. 국회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시장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기관, 정치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심각한 배달앱 분야는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일방적인 배달비 부담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국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역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



수수료 상한제 특별법을 통해 배달 플랫폼을 규제하는 모습. /인공지능 생성 그림

음 달 9일 전까지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달앱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총수수료에 법적 상한을 두겠다는 것이 골자다. 규제의 칼끝은 업계 양대 산맥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를 겨냥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인위적인 수수료 상한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학계에서는 신중론

을 제기하고 있다. 강제적인 규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희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는 특별법을 두고 “온플법이 경기장을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규칙이라면, 특별법은 선수 개개인에게 규칙을 부과하는 형태”라고 비유했다. 그는 “온플법은 통상 마찰 등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특별법 역시 ‘수수료’라는 단어

에만 너무 매몰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단기적인 정책 효과는 있겠지만 그 후과를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태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수료 상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와 오히려 보호하려던 소상공인에게 더욱 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제적인 가격 제한보다는 차별적인 수수료 체계를 만들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플랫폼이 자발적인 소상공인 우대 정책을 펼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희 교수는 배달 시장을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닌 ‘생태계’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환경은 일방향이 아닌 상호 작용하는 순환 구조”라며 “인위적인 개입은 이미 형성된 배달 생태계의 훼손을 피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는 자생력을 키우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성희 교수는 “소상공인, 플랫폼, 라이더, 소비자가 얹힌 구조를 고려해 플랫폼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상생 모델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 등으로 각 플레이어의 역량을 키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 특정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부작용을 검토해 확대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규제가 오히려 독과점을 고착화하며 해외 자본에 안방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1일 열린 ‘공정한 유통생태계를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 포럼에서 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본부장은 “현재 운영 중인 땡겨요와 같은 공공 배달앱의 수수료도 약 20% 수준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해도 국내 수수료가 결코 과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정치권 논의대로 10~15% 수준의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이미 막대한 적자를 감내하며 경쟁 중인 업계 2, 3위 기업들은 적자 폭이 심화되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셀트리온 ‘짐펜트라, 임상 3상 사후분석 공개

학술지 ‘임상 위장병학 간장학’ 게재
크론병 환자 대상 ‘LIBERTY-CD’ 결과
모든 염증 부위서 일관된 치료 효과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의 글로벌 임상 3상 사후분석 결과가 국제학술지 ‘임상 위장병학 간장학’에 게재됐다고 26일 밝혔다.

짐펜트라는 인플릭시맙 성분의 피하주사(SC) 제형 바이오 의약품이다. 이번 발표는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LIBERTY-CD’ 임상의 사후분석 결과다.

LIBERTY-CD 임상은 중등도·중증 활성 크론병 환자에서 위약 대비 인플릭시맙 SC 유지치료의 약효 우월성을 확인했다. 이후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확인한 부위별(소장, 대장 등 장기), 분절별(회장 말단, 좌측 결장, 수평 결장,



짐펜트라. /셀트리온

우측 결장, 직장 등 장의 특정 부분) 치료 반응을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은 염증 위치에 따라 소장형, 대장형 등으로 구분하며, 이중 소장형은 대장형 대비 상대적으로 진단이 어렵다. 특히 천공, 협착 등 흔히 발생하는 등 질병 증상이나 진행 단계에서 차이가 있다. 약물요법 치료에 대해서도 부위별로 반응이 다를 수 있다.

사후분석에서는 인플릭시맙 SC 유지 치료를 1년간 진행한 환자군이 염증 부위와 무관하게 위약 대비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 소장형이나 회장 말단부터 결장, 직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염증 부위에서 일관된 치료 효과를 보였다. 부위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기존 크론병 치료제들과 차별화되는 결과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향후 짐펜트라의 치료 전략과 치료제 처방 선택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염증 발생 부위와 상관없이 일관된 치료효과를 나타냄으로써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미 입증된 투여 편의성과 뛰어난 치료효과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처방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동아쏘시오홀딩스, 중대재해 대응훈련 실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체험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 25일 서울 동대문구 본사 O동 WINGS(윙스)에서 ‘중대재해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본사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ST, 동아제약, DA인포메이션, 동아오츠카 임직원과 협력사 근로자들이 참여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구성원의 응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동대문소방서가 훈련을 진행해 참가자들은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직접 체험하며 응급 처치 능력을 학습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서울 동대문구 본사 지역에 근무하는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 대상으로 중대재해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훈련으로 임직원과 협력사 근로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안전문화를 체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동아제약 CU·GS25 편의점서 ‘오쏘몰 이문 1일분’ 선배

동아제약은 국내 편의점 CU와 GS25에서 이중제형 멀티비타민 ‘오쏘몰 이문 1일분’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오쏘몰 이문 1일분은 면역기능과 기초영양 관리에 초점을 맞춰 총 18가지 영양성분 중 14종을 액상에 담아낸 고농축 제품이다. 비타민C, 아연 등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지원한다.

오쏘몰은 독일 프리미엄 비타민 브랜드로 동아제약은 지난 2020년 오쏘몰을 국내 정식 도입했다. 동아제약은 백화점 플래그십 스토어, 올리브영 등에 이어 편의점까지 판매망을 확장함으로써 브랜드 확대 전략을 강화했다. /이청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규제기관 승인 400건 확보

디지털 기반 품질 관리 체계
규제 대응 표준화 등 성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규제기관 제조 승인 400건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1월 기준 미국 식품의약국(FDA) 49건, 유럽의약품청(EMA) 46건을 포함해 전세계 다수의 규제기관으로부터 총 400건의 제조 승인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300건 달성 이후 불과 1년 만에 100건을 추가로 획득한 성과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 능력 확장과 생산제품 증가에 따라 제조 승인 트랙레코드를 빠르게 축적해 규제기관 심사 통과율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규제 기관의 제조 승인은 의약품 허가 과정 중 일부 절차다. 해당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전 과정이 각국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적합함을 의미한다.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 생산한 의약품이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제품 단위로 수십 명의 전문 인력과 수개월에 걸친 검증이 필요해 CDMO 기업의 품질·운영 역량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이기도 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유럽 등 까다로운 글로벌 규제기관 실사에도 안정적으로 제조 승인 실적을 쌓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문 인력 양성 ▲디지털 기반 품질 관리 체계 ▲규제 대응 표준화 등이 꼽힌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 ‘ESG 베스트 100대기업’ 선정

중견기업 그룹 중 27위 기록

광동제약은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ESG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며 ‘ESG 베스트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주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는 기업의 ESG 리스크 관리 역량과 기회 발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A등급을 부여한다.

광동제약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전체 영역에서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ESG 기반의 의사결정을 강화해 평가기준에 충실히 부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광동제약은 자산 5000억~2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그룹 가운데 27위를 기록하며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환경경영·사회공헌 리포트 발간, 환경정보공개제도 참여 등 투명성과 정보공개의 폭을 넓힌 활동이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광동제약의 ESG 경쟁력은 다른 외부 기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5년 평가에서 통합B등급을 받았으며, 환경(E)·사회(S) 부문에서는 모두 A등급을 획득했다. 기업 홈페이지 내 ESG 섹터 신설, 이해관계자 소통 기반 강화 등 ESG 인프라 구축 노력도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회사가 꾸준히 고도화해 온 ESG 경영 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통해 입증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 I/T, F, E



40주년 **보노보노** 특별전 in Seoul

2025. 12. 12 -
2026. 3. 29

원작자 이가라시 마키오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NS홈쇼핑, 성남시 화재취약계층에 소화기 전달
NS홈쇼핑이 지난 25일 성남시청에서 화재취약계층을 위한 스프레이형 소화기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 위험에 대비해, 주거밀집지역이나 고령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초기 대응이 어려운 가구에 사용이 간편한 소방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NS홈쇼핑



하이트진로, 협력사 동반 나눔바자회 성료
하이트진로는 하이트진로 및 협력사 임직원들이 함께 기증한 물품을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기부금을 마련하는 제14회 '아름다운하루 특별전' 나눔바자회를 성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부산 사직동에 위치한 아름다운가게 부산사직점에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와 협력사 대표 및 관계자 약 30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판매 봉사활동을 함께 했다.

/하이트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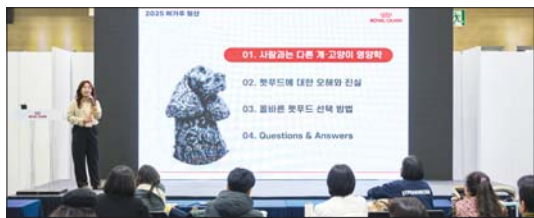
LG U+, 충주성모학교에 'U+희망도서관' 구축
LG유플러스가 시작장에 학생들의 독서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 청주시 충주성모학교에 열 번째 'U+희망도서관'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개관한 열 번째 희망도서관에는 전자프린터와 독서확대기 등 최신 ICT 기기가 설치됐다. 이홍렬 LG유플러스 ESG추진실장(왼쪽)과 장은주 충주성모학교 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CU, 국내 첫 '착한 100원 기부 캠페인' 시행
편의점 CU가 고객이 결제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착한 100원 기부 캠페인을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CU 매장에서 고객이 셀프포스(Self-POS) 모드로 신용카드 결제 시, 마지막 단계에서 100원 기부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승배 BGF리테일 대표(가운데)가 업무협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BGF리테일



로얄캐닌코리아 '반려동물 영양 세미나' 인기
2025 메가주 일산에서 열린 로얄캐닌코리아의 '반려동물 영양 세미나'는 모집과 동시에 전 회차가 빠르게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았다.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로얄캐닌코리아 마케팅 책임 수의사가 연사로 참여해 ▲펫푸드 의 모든 것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반려동물 영양 관리 두 가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로얄캐닌코리아

‘글로벌 ACX 초월대상’서 최고기술·인재 한자리에

**SW·ICT 우수제품·인재 발굴
정부 대규모 투자에 발맞춰
AI 플랫폼·서비스시장 창출**

첨단 인공지능과 클라우드가 이끄는 ‘ACX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 기술과 인재들이 ‘글로벌 ACX 초월대상’에서 올해의 주역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SW·ICT)총연합회와 메트로미디어가 주관한 ‘2025 제3회 글로벌 ACX 초월대상’ 시상식 및 컨퍼런스가 26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메타빌드 AI 스페이스 센터에서 열렸다.

글로벌 디지털 초월대상은 첨단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가 주도하는 ACX 시대에 SW·ICT 산업을 선도한 국내외 최고 기술혁신 제품과 인재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는 행사다. 행정·국방·금융·콘텐츠·보안·교통·건설·교육·제조 등 분야에서 인증된 상용 SW·ICT 제품 가운데 우수 제품과 인재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개최사는 조종연 한국SW·IC



26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메타빌드 AI 스페이스 센터에서 열린 ‘2025 제3회 글로벌 ACX 초월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T총연합회장이 맡았으며, 류제명 과 기정통부 차관이 환영사를 했다.

조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해진 해답이 없는 AI 시대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리더십과 과감한 사고 전환”이라며 “정부의 대규모 투자에 발맞춰 민간도 단순 도입을 넘어 AI 플랫폼과 서비스 시장을 스스로 창출하고 실질적인 성공 사례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정부는 ‘AIG3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

회를 출범했고, 민·관 협력으로 핵심 자원인 GPU 26만 장을 조기 확보한 것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큰 성과”라며 “AI가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의 기반을 바꿀 인프라 전환점인 만큼,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 도전이 결실을 맺도록 과기정통부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축사는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격려사는 이장

현대위아, 포드 ‘Q1 어워드’ 인증 획득

멕시코법인, 등속조인트 공급

현대위아는 멕시코법인이 글로벌 완성차 포드로부터 품질 우수업체를 의미하는 ‘Q1 어워드’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포드의 Q1 어워드는 ‘Quality is No.1(품질이 가장 뛰어나다)’이라는 뜻으로 포드가 생산 기술과 품질 개선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업체에 수여하는 인증이다.

현대위아멕시코법인이 Q1 어워드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드에 6년간 등속조인트를 공급하며 보인 품질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

등속조인트는 엔진이나 모터가 만드는 동력을 자동차 바퀴로 전달하는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다. 2019년부터 포드 고급 브랜드 링컨의 SUV ‘코세

어’에, 2021년부터는 포드의 픽업트럭 ‘매버릭’에 등속조인트를 공급하고 있다.

현대위아가 오랜 기간 등속조인트를 양산하며 쌓은 경험도 이번 인증에 토대가 됐다. 1988년 첫 양산 이후 30년 이상 세계 최고 수준의 등속조인트를 만들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국내 자동차 부품사 중 처음으로 등속조인트 누적 생산 1억 개를 돌파한 바 있다.

현대위아는 이번 인증으로 향후 포드의 신차 개발 참여에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벌 완성차로부터 품질력을 인정받은 만큼 북미 지역 영업도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 등속조인트의 소음·진동·불쾌감(NVH)을 최소화하고 무게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해 북미 완성차 업체 공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중앙그룹-KT&G, 연탄나눔 봉사 진행

30가구에 연탄 6000장 전달
공동으로 기금 1.4억 등 마련

중앙그룹과 KT&G는 전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공동 연탄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종호 중앙그룹 ESG담당과 배수민 KT&G 지속경영본부장 등 양사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지역 내 연탄 사용 가구 30가구에 연탄 6000장을 직접 전달했다.

양사는 올해 공동으로 기금 1억 4000만원과 연탄 6만장을 마련했다. 올해 포함, 5년간 위스타트에 기부한 기금은 총 6억 3900만원, 연탄은 총

34만장에 달한다. 위스타트는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에너지 취약가구 약 550여 세대를 선정해 연탄과 난방용품, 식료품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매해 연탄은 중앙그룹이 기획한 연택트 기부 러닝 캠페인 ‘연탄런’과 KT&G 임직원 사회공헌기금 ‘상상펀드’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 ‘연탄런’은 3.65km 이상을 달린 뒤 러닝 기록을 인증하면 연탄이 기부되는 미션형 캠페인으로, 올해는 9월부터 두 달간 일반 시민과 중앙그룹·KT&G 임직원 6000여 명이 참여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GRS, ‘동반성장 유공포상’ 장관표창

지역 공동체 지속가능 발전 기여

롯데GRS는 전날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2025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은 매년 ‘동반성장 주관’을 맞아 동반 성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포상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촉진하기 위해 개최된다.

롯데GRS는 지방자치단체 및 동반



지난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롯데GRS ESG팀 조미현 팀장이 인증패 수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GRS

위와 협력하여 ▲지역상생 모델 구축 ▲상생기금 출연 등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 확산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공적으로 수상 받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엔씨소프트, ESG 평가 5년 연속 ‘A등급’

글로벌 ESG 평가서도 성과

엔씨소프트가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5 ESG 평가’에서 5년 연속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KCGS 평가에서 동일 등급을 5년 연속 유지한 게임사는 엔씨소프트가 유일하다. 엔씨는 2021년 국내 게임사 최초로 KCGS 종합 A등급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KCGS ESG 평가는 국내 상장사를

인사

◆ **롯데그룹** ◇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 롯데쇼핑 마트사업부 대표이사 겸 슈퍼사업부 대표이사 사장 차우철 △ 롯데지주 HR혁신실장 사장 박두환 △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이사 부사장 정현석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 전반의 경영 체계와 성과를 심층 분석하는 평가 제도다. 엔씨소프트는 ▲환경 데이터 고도화 ▲글로벌 수준 보안 체계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엔씨소프트는 글로벌 ESG 평가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국내 게임사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아시아·퍼시픽(Best-in-Class) 지수에 편입됐으며, MSCI ESG 평가에서도 AA 등급을 기록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부음

▲이준경씨 별세, 이인학(삼성전자 DS 부문 대외협력팀 상무)·수학·상희씨 부친상, 진송희씨 시부상, 김태수씨 빙부상 = 23일 별세, 아주대학교병원장례식장 22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031-219-6654.

내신 5등급 시대, 지역·유형별 전략 갈린다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2028학년도 대입은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의 본격적인 결합으로 기존 대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전환점’으로 작용한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확실적인 줄 세우기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의 잠재력과 자기 주도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우리 교육의 깊은 철학적 변화를 반영한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 내 학군지와 외 지역, 고교 유형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엇갈리며, 현명하고 선제적인 극복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내신 5등급제 도입이 가져올 ‘변별력 상실’이라는 충격이다. 1등급 비율이 상위 10%로 확대되며 내신의 미세한 변별력은 사실상 없어진다. 이는 상위권 대학 경쟁에서 동점자 대거 발생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대학들은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학생부의 정성적 요소를 극대화하며 새로운 변별력을 확보한다.

그동안 수는 중심으로 설명되던 정시는 크게 변모한다. 서울대는 정시 일반전형에

수시 학종 수준의 ‘교과 역량 평가’를 도입했고, 건국대는 정시에서 수능 80%에 학생부 정성평가 20%를 반영한다. 이는 과거의 ‘수능 올인’ 전략이 더는 통하지 않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고교 3년간의 충실한 학생부 관리가 이제 정시 합격의 결정적인 변수로 격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시는 경희대의 교과전형에 ‘교과종합평가’처럼 교과 성취도뿐 아니라 탐구 활동과 진로 일관성이 핵심 변별 요인이 된다. 결국 ‘수능과 학생부의 분리’는 사라졌고, 두 요소는 학생의 진정성 있는 학업 태도와 탐구 역량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통합되고 있다.

이 변화는 고교 유형별 유불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첫째, 특목고·자사고는 내신 5등급제로 인해 정량적 우위가 약화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게 된다. 내신 1등급 비율이 상위 10%로 확대되면서, 명문고의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기존 2~3등급이 암묵적으로 드러내던 학업적 탁월함이 등급 숫자만으로는 충분히 변별되지 못하고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화 선택과목 이수, 탐구 중심 수업 경험 등 정성평가에서 드러나는 학업 역량은 여전히 강점으로 작용한다. 이들은 수능 고득점과 더불어 소논문, 심화탐구보고서 등 고급 과목 기반

의 진로 특화형 학생부를 구축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둘째, 학군지 일반고는 5등급제 수혜로 겉으로 보기에 내신 1~2등급 확보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내신 등급 내 동점자가 급증하는 새로운 압박에 직면한다. 학군지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치열한 내신 경쟁에 몰입하다 수능 대비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경우 오히려 ‘전략적 안전판’을 잃을 위험이 증가한다.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의 수능 최저 폐지 등 일부 대학의 완화된 기준은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다. 대다수 주요 대학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 충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동점자 속출에 대비해 교과서 밖의 독서, 자율, 동아리, 진로활동을 통한 특정 분야 심화 탐구 등으로 고품질 세특 관리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진정한 변별력을 확보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비학군지 일반고는 5등급제로 상위 등급 확보가 용이하고, 서울대 지역균형 확대 등 정책적 기회가 존재한다. 하지만 교육 환경의 질적 격차로 인한 정성평가 불리함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BS 진로전략연구소장

‘딸깍’ 소리에 발작 버튼 눌리네



기자 수집

김 현 정
(IT부)

신조어를 좋아한다. 우리 사회의 우스꽝스러운 세대를 촌철살인의 풍자로 풀어낸 표현들이 주는 묘한 쾌감이 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던 ‘발작 버튼 눌렀다’라는 표현처럼 말이다. 이 유행어(?)는 누군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유발할 만한 트리거를 건드렸을 때 사용되곤 했다. 버튼을 누르면 나는 의성어 ‘딸깍’이 자주 함께 쓰였다.

최근 AI(인공지능)의 부상과 함께 ‘딸깍’의 쓰임새도 달라졌다. 이제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로 무언가를 대충 쉽게 해내는 모습을 빗대는 말로 쓰인다. 필자

는 ‘AI 전문기업’이라는 수식어를 내세운 취재처가 답변을 늦게 줄 때면 “명색이 AI 전문기업이라면서 ‘딸깍’도 못 하나?”라고 혼잣말을 궁시렁거려곤 했다.

회사 LLM(거대언어모델)에 질의서를 넣고 답변 초안을 받아, 팩트 체크하고 표현만 좀 다듬으면 10~15분에 끝날 일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가 안 갔다.

얼마 전, 이 ‘딸깍’ 소리에 발작 버튼이 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개발자인 지인에게 “AI 때문에 개발자들 다 잘린다는데 정말 큰 일이다”라고 ‘걱정’해줬더니 그쪽에서 “기차도 곧 아냐? 기사는 ‘딸깍’하면 하루에 100개, 1000개도 금방이잖아”라고 맞받아쳤다.

취재원의 답변을 기다리며 투덜거렸던 과거가 떠올랐다. 혹 그간 내가 다른 사람의 노고를 ‘딸깍’이라는 두 글자로 평가절하해왔던 건 아닐까. 나는 그리고 어쩌면

당신 혹은 우리는, 그간 ‘딸깍’이라는 말로 비아냥대며 타인의 수고와 노력을 얼마나 많이 후려쳐왔던가. 며칠 전 기사를 준비하며 흥겨운 미술 평론가에게 “전문가들의 전망과 달리,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예술 창작 분야가 가장 빠르게 AI에 잠식된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은 적이 있다. 그의 답변이 이 ‘내로남불 딸깍 사태’를 풀어줄 실마리가 될 것 같아 덧붙인다.

“일단 아직까진 전문가들의 예측이 빗나갔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몇몇 주요 미술관에서 AI와의 창작에 호의적인 것은 맞고, 언론은 그것을 침소봉대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작가들은 AI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작업한다. 도구로서의 AI와도 거리를 두는 작가들이 많다. 사회적 현상에서만 보면 갈수록 저항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제가 아는 한 절대다수다.” /hjk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27일 (음 10월 8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친구가 찾아와서 근심을 던져 준다. 48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한다. 60년생 주변이 인정해 주니 마음이 든든하다. 72년생 변화가 있어도 영향은 미미하다. 84년생 눈앞의 실속을 쟁기다 큰 이익을 놓친다.	
 소	37년생 착한 옛친구를 만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49년생 눈에서 멀어져도 마음이 변하지 마라. 61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좀 더 노력하라. 73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낫다. 85년생 침묵해야 모두가 편하게 간다.	
 토끼	38년생 내가 먼저 행동해야 상대도 따라온다. 50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 62년생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적다. 74년생 손풍에 뒤편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86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를 높이고 실속도 챙긴다.	
 토끼	39년생 혼자는 외롭지만 둘은 괴롭다. 51년생 여기저기 계속되는 지출에 삶이 지겨워진다. 63년생 가진 것이 없으니 가족도 부담이 될 것이다. 75년생 늦었다고 포기 말라. 87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도 따라서 상쾌.	
 양	40년생 의견충돌이 염려되니 고집을 조심. 52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64년생 말은 쉬우나 주위 담을 수 없으니 조심. 76년생 혼자서라도 웃으면서 지내라. 88년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날.	
 원숭이	41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걸어 간다. 53년생 힘든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65년생 호감이 가는 이성의 유혹이 있다. 77년생 집 나간 말이 새 식구를 데려오니 이득이 많은 날. 89년생 상대의 실수를 덮어 주면 보답을 받는다.	
 말	42년생 어제의 친구가 적으로 오니 배신감을 느낀다. 54년생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 66년생 힘든 길이라도 가다 보면 좋다. 78년생 조인이 간섭될 수 있으니 내 할 일에 충실해지라. 90년생 술자리는 하지 않는 것이.	
 고양이	43년생 산행에서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까 걱정된다. 55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는다. 67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지 보람이 있다. 79년생 욕심을 부리면 손재에 발목을 잡힌다. 91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하니 충전이 필요.	
 원숭이	44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관을 가져라. 56년생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야 한다. 68년생 불평은 운을 깎는다. 80년생 길 떠나라는데 폭풍우가 치는 격이니 잠시 지체. 92년생 자신의 머rian 믿고 있다가는 일을 그르친다.	
 닭	45년생 고칠 수 없는 것은 미련 없이 버려라. 57년생 재는 많은 자식 때문에 경제적 곤란을 겪는다. 69년생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답을 찾자. 81년생 만남에서 민망한 일을 겪을 운세. 93년생 평온한 바다에 한가로이 떠다니는 하루.	
 돼지	46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58년생 행복은 재물에서 비롯되니. 70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사용하면 된다. 82년생 적산공덕의 끝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94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돼지	47년생 항상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 59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써라. 71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품어라. 83년생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95년생 부자는 우선 자체력과 신용에서 시작.	



김상회의四季

인성도 교육되어야

전통적으로 교육은 온전한 인성과 인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본래 교육은 인간 형성의 주된 수단이지 출세의 수단이 아니었다. 유교적 관념으로는 군자(君子)의 성품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으로 태어나 이뤄야 하는 전인적인 목적지였다. 어느 때부터인가 교육은 개인의 출세, 입신양명의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 출세는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돈을 버는가가 기준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결국 ‘돈’으로 치환되는 것이다. 야비하고 더러운 술수를 써서라도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마키아벨리즘이다. 이는 바르고 참된 순연의 정치로서 백성을 이롭게 하려는 아름다운 정치의 요순시대를 꿈꾸던 공자가 보자면 귀를 찢을 얘기다.

사회가 단순하고 단일화되어 있던 시대에는 과거를 통한 것이 입신양명의 첩경이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높은 연봉이 보장되는 명문대 학벌과 학위가 한동안 우위를 차지했었다. 그러다 슬슬 3차 산업 시대가 끝나가면서 컴퓨터공학이 등장하더니 부지불식 간에 인공지능사회로 들어섰다. 개성이 존중되는 것도 인본주의 시대애나 가능하다는 생각이어서 이제 개인은 없고 AI에 의해 조정과 관리를 받는 인간 부품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보면 과장일까?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고 AI는 AI다.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출 수는 있지만, 인공지능은 마이크로 칩이다. 그것에게는 따뜻한 피가 흐르지도 않고 촉감을 나누는 감정의 공유가 실제가 될 수 없다. 얼마 전 나온 영화 중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AI인형이 왜곡된 감정으로 자기감정에 방해되는 사람을 살상하고 교묘하게 조종하는 AI세상의 부작용과 부조리를 다룬 공포영화도 보자니 몹시 두려운 세상이 멀지 않은 듯하다. 도덕이 사라지면 파멸적인 감정만 남는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 의 절대비율을 증가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2	7	9	2	1	6	8
9	7	1	8	6	9	8	2	2
6	2	8	2	1	8	7	9	9
7	9	9	1	2	8	6	2	8
2	6	8	9	9	7	8	1	2
1	8	2	6	8	2	9	9	7
8	1	6	8	7	9	2	8	9
9	7	2	2	1	9	8	6	
8	2	9	9	8	6	2	7	1

1	2	2	8	9	8	7	9	6
8	9	9	6	7	1	2	2	8
6	7	8	2	9	2	9	1	8
2	8	1	9	2	8	6	9	
9	8	9	1	8	6	2	2	7
7	2	6	9	8	2	1	8	9
8	1	8	2	6	9	9	7	2
9	6	2	7	1	9	8	8	2
2	9	7	8	2	8	6	9	1

서울고속터미널, 지상·지하 입체개발 시동

서울시 고터,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트리플 역세권 등 개발 파급력 높아
지하차로 신설 등 입체복합개발 추진

서울시가 지난 9월 사전협상 대상지
로 선정한 서초구 14만6260.4㎡ 규모 서
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와 관련, 민간사
업자(㈜신세계센트럴, 서울고속버스터
미널㈜)가 제안한 대규모 복합개발에
대해 본격적인 사전협상에 착수한다.

이번 사전협상 대상지는 서울 중심에
위치한 대규모 부지로, 한강 이남 유일
의 3·7·9호선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도심
및 공항까지 뛰어난 접근 및 연결성을
확보하고 한강변이라는 입지적 차별성
을 가지고 있어 그 개발 파급력은 상당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70년대 경
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아침은 서울,
점심은 부산’ 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의
시공간 개념을 바꾼 국가대표 교통거점
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약 50년 가까이 되는 노후한
건축물과 부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차공간은 보행단절 및 도시슬럼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고
속버스 진출입으로 인한 만성적 교통체
증과 대기오염·소음 같은 교통공해 피
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남동측 조감도. /서울시

이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개발계획
(안)에 따르면 노후화된 경부·영동·호남
선 고속버스터미널을 지하로 통합하고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상부
에는 업무·판매·숙박·문화·주거가 결합
된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글로벌 미래융
합교통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사업자는 공공기여를 활용
해 고속버스 지하 직결차로를 신설하
고, 주변 연결도로를 입체화·지하화해
지상부 교통량을 줄이는 등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 연계 입체보행고 등 한강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는 본 개발계획(안)의 공
공성 확보를 위해 광역적 차원의 교통개
선대책과 지역 필요시설 등에 대해 검토
하고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방안 등에 대
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체납자 가상자산 직접 매각 나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계정 개설
압류부터 매각까지 ‘원스톱 징수’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국내 4대 가상
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빗·코인
원에 모두 비영리 법인 계정을 개설하
고,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시 계
정으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는 절차를
12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가상자산이 사실상 새로운 ‘은닉 수
단’으로 활용되던 구조적 한계를 지자
체 차원에서 정면 돌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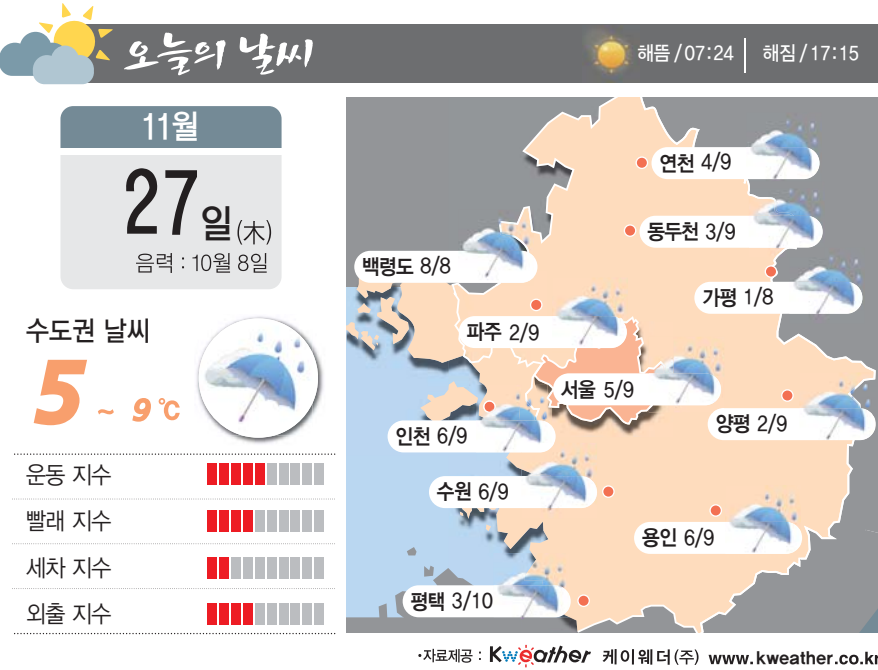
그동안 일부 체납자는 추적이 상대적
으로 어려운 디지털 자산을 이용해 재산
을 숨기거나 세금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양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국내 주요 거래소와 협의 끝에 네 곳
모두에서 법인 계정을 개설하는 데 성공
했다. 이로써 압류부터 이전·매각까지
를 한 흐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상자
산 원스톱 징수 체계’가 갖춰졌다.

시는 현재 압류된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자발적 매각 안내
문을 발송했으며, 기한 내 매각이 이루
어지지 않으면 시가 직접 압류된 가상자
산을 법인 계정으로 안전하게 이전한 뒤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매각 대금은 지
방세 체납액에 충당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메트로 한줄뉴스



▲베트남 중남부 홍수 사망자 90명으로…피해액 5000억원 추산 /사진 뉴시스
▲브라질 COP30 회의서 “기후변화 대응 총 동원령” 결의안 채택

▲中 왕이 “日 ‘대만 발언’ 레드라인 넘었다”…‘즉각 시정’ 촉구
▲국토부, UAE와 지방공항 운수권 주 4회 신설…도미니카와 항공협정 체결

▲“45석 이상 날릴 것”…日 여당, 의원 ‘10% 감축’ 초강수
▲영국 한류팬들과 어우러진 한국문화…‘한류콘2025’ 런던서 성료

교육부 “만족도 높아” vs 교원단체 “현장과 달라”

고교학점제 만족도, 현장과 온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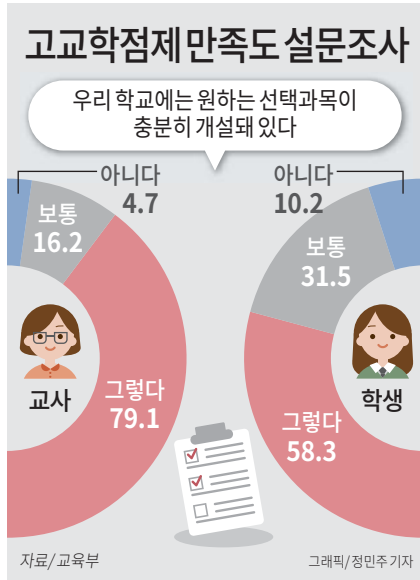
교육부, 고교학점제 만족도 조사
학생 64.2%, 교사 76.3% 만족
‘선택과목 개설’ 학생 만족도 낮아

교원단체, 현장과 다른 결과에 반박
설문방식, 제도적 문제 반영 어려워

정부가 실시한 고교학점제 첫 학기 만
족도 조사에서 학생의 60~70%가 과목
선택과 진로·학업 지도에 긍정적으로 응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반
적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그
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결과가 현실
과 동떨어져 있다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고교학
점제를 둘러싼 정부와 현장의 인식 차이
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정책 논의
에서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
국 일반고 160개교 학생 6885명, 교사
4628명 등 총 1만1513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설문조사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만
족도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
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문에서 전체
평균 만족도는 학생 64.2%, 교사 76.3%
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러한 결과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공공연구기관이 실시한
첫 공식 조사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하는 과목이 충분히 개설된다



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 79.1%에 비해 학
생은 58.3%에 그쳤고, 개설 과목 자체에
대한 만족도도 58.4%로 상대적으로 낮
아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지목했다.

교육부는 향후 학교 규모·지역별 운
영 차이를 분석해 과목 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
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는 이번 결과가 학교 현장의
체감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다. 단체
들은 “설문에 참여한 학교나 교사를 현
장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표집의 대표성
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과 교사에게 학교명뿐 아니라 학
번·이름·휴대전화번호까지 적도록 한

설문 방식이 비편적 응답을 위촉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설문 문항 구성도 논란의 핵심이다.
교원단체는 “문항 상당수가 제도 자체의
효과를 묻기보다 ‘나 자신’,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형태”라며 “교사나 학생이 부정적 응
답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는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
관련 설문에 부정적으로 답하면 이후 행
정 압박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는 불안이 존재한다”며 응답의 자율성
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고교학점제가 가져오는
운영상의 부담을 지적했다. ▲공동교육
과정 운영 ▲학생별 시간표 편성 ▲최
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으로 인해 학교
행정과 교사의 수업 준비가 크게 늘었
으며, 일부 학교는 전담 인력 부족으로 업
무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 3단체는 “이런 결과가 ‘현장 의
견’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근거로 활용
될까 우려된다”고 비판하며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미
이수제 폐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일부 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제도 보완을 통
해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초등학교 예비소집… 소재불명 시 수사 의뢰

2026 초등학교 취학통지 실시
보호자,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시·도교육청,
지자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와 예비소집을 실시
한다고 26일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12월 3일부터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
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
다. 오프라인 취학통지서는 12월 10일
(지역별 상이)부터 20일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가 우편(등기) 또
는 인편으로 발송한다. 정부24 취학통
지서는 취학 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발급되며, 모바일 앱으로
는 제공되지 않는다.

예비소집은 초등학교 입학 정보 제공
과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으로 실시한다. 각 학교와 지역별 일정
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기
재된 날짜에 맞춰 아동과 함께 예비소집
에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을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

화 연락·가정방문 등을 통해 소재와 안
전을 확인하고, 필요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조기입학 또는 입학 연기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
해야 한다.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으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학예정 학교
에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도 보호자가
거주지 초등학교에 직접 입학을 신청하
면 된다. /이현진 기자

서울 아동센터 ‘맞춤 영어교육’ 시범도입

초등 1~2학년 100여명 대상

정규 영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 3학
년 이전 공교육 공백기에 놓인 지역아
동센터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맞춤
형 영어교육이 시범 도입된다. 태블릿P
C·교육 콘텐츠와 함께 학습 코칭을 제

공해 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습 격차가
정보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6일 서울 소재 지역아동센
터 초등 1~2학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서
울런3.0-서울형 영어교육’을 운영한다
고 밝혔다. 기간은 12월부터 6개월이다.

이번 사업은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교육
자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구
성 원에게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해 가구부
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영
어가 AI 확산 등으로 정보·지식 접근의 디
지털 기본 역량으로 자리 잡은 만큼, 학
습 효과 분석을 통해 연령·수준별 ‘서울
형 영어교육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
이다. /이현진 기자



롯데그룹
화학·유통 부진
창사이래 최대 인사
L1



Life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급물살
생태계 훼손 우려도
L2



우리집이 홈카페로 취향 따라 내려주는 ‘캡슐 속 바리스타’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동서식품 ‘카누 바리스타’

대한민국 대표 커피전문기업 동서식품이 프리미엄 캡슐커피 브랜드 ‘카누 바리스타 (KANU BARISTA)’를 중심으로 커피 시장 공략을 본격 강화하고 있다. 2023년 첫선을 보인 카누 바리스타는 홈카페 트렌드 확산과 합리적 가격대의 프리미엄 제품군이 주목받으며 빠르게 성장, 캡슐커피 시장의 핵심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캡슐커피 시장은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4041억 원에 달했으며, 2023년 4000억 원대 초반, 2022년 3695억 원, 2020년 1980억 원에서 매년 확대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0% 안팎 성장한 것으로 홈카페 문화 정착과 캡슐커피의 간편성, 커피 머신 보급 확대가 시장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프리미엄 캡슐커피 수요가 늘면서 카누 바리스타 제품군 역시 점차 확장되고 있다. 동서식품이 처음 선보인 라인업은 커피 머신 2종과 전용 캡슐 8종, 타사 호환 캡슐 6

프리미엄 캡슐로 커피시장 공략 강화
트라이앵글 탬핑 적용, 균일한 맛 유지

산지별 대표 캡슐, 라떼 전용 캡슐 등
캡슐·머신 라인업 보강… 선택 폭 넓혀

취향 맞는 캡슐 찾기 플래그십 운영 등
원두별 개성·풍미로 고객 만족도 올려

종으로 구성됐다. 카누 바리스타 머신에는 특허 기술 ‘트라이앵글 탬핑(Triangle Tamping)’이 적용돼 추출 직전 커피를 균일하게 눌러주어 향미와 퀄리티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전용 캡슐에는 기존 대비 약 1.7배 많은 9.5g 원두가 담겨 있어 캡슐 하나로도 머그 한 잔 분량의 아메리카노를 추출할 수 있다.

캡슐 라인업은 ▲라이트 ▲미디엄 2종 ▲다크 2종 ▲아이스 2종 ▲다카페인 등 총 8종으로 국내 소비자의 취향 스펙트럼을 반영했다. 이후 동서식품은 시장 반응에 맞춰 지속적인 라인업 보강에 나섰다. 2023년에는 에티오피아·콜롬비



카누 바리스타 어반(왼쪽), 카누 바리스타 브리즈.

/동서식품



‘카누 바리스타’ 신제품 캡슐과 머신.



‘카누 바리스타’ 광고 이미지.



겨울 한정판 ‘카누 윈터 스노우’.



카누 포르테 앙상블, 카누 소프트 하모니.

아·인도네시아 등 산지를 대표하는 ‘싱글 오리진’ 캡슐 3종을 출시하며 전문성을 강화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진한 초콜릿 풍미가 특징인 ‘카누 이터널 마운틴’과 상큼한 산미의 ‘카누 세레니티 문 디카페인’을 추가했다.

카누 바리스타 머신은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 영국 디자이너 벤자민 휴버트(Benjamin Hubert)가 디자인한 ‘어반’과 ‘브리즈’를 시작으로, 미니멀 사이즈로 공간 제약을 줄인 ‘페블’ 등 총 3종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모카’·‘라벤더’ 등 신규 컬러를 추가하며 다양한 인테리어 스타일에 맞춘 선택지를 제공했다.

카누 바리스타 머신과 캡슐커피는 전국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홈쇼핑 채널 등에 입점했으며 공식몰에서는 구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동서식품은 소비자 접점을 넓히기 위해 팝업스토어 운영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달 초까지 운영된 북촌 플래그십 스토어 ‘카누 캡슐 테일러 in 북촌’은 맞춤복을 제작하는 테일러숍 콘셉트를 적용해 개인 취향에 맞는 캡슐 추천과 체험 기회를 제공

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자양역 유희공간에서 ‘카누 휴식역’ 팝업스토어를 열어 일상 속 휴식 콘셉트로 호응을 얻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스타필드 고양·하남에서 ‘그랜드 카누 호텔’ 팝업을 운영해 프리미엄 호캉스 콘셉트 체험존을 선보였다. 10월에는 스타필드 하남에서 ‘스위치 투 카누’ 팝업으로 호환 캡슐 체험을 강화하며 브랜드 접근성을 확대했다.

카누 바리스타의 가장 큰 강점은 다양한 취향을 세밀하게 반영한 캡슐 구성이다. 라이트·미디엄·다크 로스트부터 다카페인, 산지별 싱글 오리진까지 다채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며, 고품질 원두를 최적의 로스팅으로 구현해 한층 풍부한 풍미를 구현했다.

여기에 지난 17일에는 라떼 전용 캡슐 ‘카누 소프트 하모니’, ‘카누 포르테 앙상블’과 싱글 오리진 ‘브라질 세하도’, 겨울 한정판 ‘카누 윈터 스노우’까지 신제품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추가로 확장했다. 특히 ‘브라질 세하도’는 꿀처럼 달콤한 여운과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 풍미가 특징으로, 열대우림동맹(RA) 인증 원두를 사용해 지속가능성도 강화했다. ‘카누 윈터 스노우’는 달콤한 밀크 초콜릿과 견과류 풍미를 강조한 시즌 한정 제품으로 겨울 카페 수요에 대응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새로운 라인업을 통해 소비자들께서 각기 다른 원두의 개성과 풍미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카누 바리스타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커피 취향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캡슐커피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서식품은 제품 라인업 확장·밀레니얼 소비층 맞춤 디자인·체험 중심 팝업스토어 운영·신규 유통채널 강화 등 전방위 전략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펜싱 송세라, 국제연맹 총회서 여자 에페 개인전 세계랭킹 1위 수상
▲안세영, 호주오픈 우승으로 ‘V10’…여자단식 최다 우승 ‘신기록’
/사진 뉴시스

▲손흥민, 멀티골 영웅→승부차기 실축…LAFC, 8강 탈락
▲NBA 살아있는 전설 크리스 폴, 올 시즌 마치고 은퇴

▲여자농구 우리은행, 신한은행 75-51 완파…2연패 후 개막 첫 승
▲박민호, 인천국제마라톤서 ‘올해 한국 남자 최고 기록’

SAMSUNG

Galaxy XR



samsung.com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을 사용하려면 삼성계정 로그인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에서

Powered by
Android XR